

5기

언제 :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의 해 5월 2일 이른 10시
어디서 : 서여대협 산하 자주 경희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총회



글 심는 순서

◆여는시◆

◆임시 의장님 인사말◆

◆총회 일정◆

◆회의 진행세칙◆

◆전여대협 강령과 규약◆

◆예산안◆

◆총노선◆

◆특별 결의문◆



여는시

그대 반쪽만의 기쁨을 기쁨이라 하지 말자,
 그대 만쪽만의 자슈를 자슈라 이쁨짓지 말자,
 그대가 누려온 기쁨과 자슈 그것의 절반은
 누군가에게서 빼앗은 것이었스니
 이제는 고개 숙여
 낮은 데로 귀 기울여 보라
 소리도 앓기고 몸짓도 앓긴 채
 오랜 어둠에 익숙해져
 어둠이 어둠인지조차 모르고 살아온
 무지와 침묵의 땅에서 꿈틀거리는 몸짓을 보아라
 억압과 차별의 굴레를 거부하는
 해방의 몸짓을 모아라
 이제는 돌려줘야 한다.
 그대가 가졌던 손전치 못한 자슈와 기쁨과 힘
 어두운 시대의 부당했던 모든 들을
 이제는 돌려줘야 한다.

그대와 손잡고 나갈 또 새날을 위하여
 그대와 함께 싸워 나가야 할
 인간해방 평등의 세상을 위하여
 이 산하 푸른 하늘 아래

우리는 결국 꽃으로 머무를 수 없다,

임시 의장님 인사글

어느해 보다 투쟁하는 운동대오의 탄압이 거센 지금 당면한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학우대중 속에서 투쟁하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어 무척이나 기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늘의 기쁨과 결의를 함께 나누지 못하고 옥중에 있는 대표자 동지들을 생각하면 인권대통령이라 자칭하는 김대중에 대한 분노가 더욱 치밀어 오릅니다.

짧은 기간 임시의장으로서의 활동이었지만 어려운 객관상황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투쟁하는 여학일꾼들을 만나면서 추상적으로만 느껴지던 동지에 대한 사랑을 가슴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곁에 없는 동지들이 더욱 더 그립습니다. 우리 어려울수록 머뭇거리지 맙시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전여대협으로 통일단결하여 순간의 아픔을 투쟁의 신심으로 극복합시다. 우리 그리고 전체여성민중의 사무친 원한만큼이나 피맺힌 투쟁으로 대격들의 정세를 만들도록 합시다. 청년의 순수한 열정을 잃지 않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기에 봄 햇살아래 피어난 꽃들 보다 아름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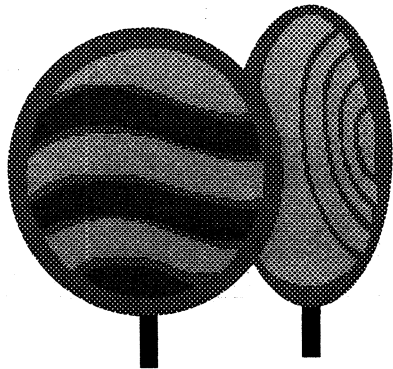
"투쟁하는 여성이 아름답다"

이것이 자주적인 삶을 지향하는 혁명적 여성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사상적 물리적 공세에도 흔들림 없는 진정 아름다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50만 여학우의 대중조직답게

여성민중의 등대지기답게 전여대협이 언제나 투쟁하도록 저부터 모범이 되어 열심히 살아갈 것을 결의합니다.

5기 전여대협 임시 의장
경기대학교 총여학생회장 최선영





총회 일정

시간	내용	
10:00	집결	
10:05 ~ 12:30	식전 문화 공연(정대협과 주미본에서 제작한 비디오물) 노래패 공연 및 노래보급(전여대협 진군가) 지역별 소개 및 문예공연	
12:30 ~ 13:10	점심 식사	
13:10 ~ 17:30	본회의 개최	
	1부 <개회 선언>	애국의례 대표자 총회 준비위원장 환영사 (경희대학교 총여학생회장님) 연대사(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님) 축사(한총련 대변인) 임시의장님 인사
	2부<본회의①>	임시체계 활동보고 (발제자: 5기전여대협 의장선출을 위한 선거관리 위원회 활동보고 5기전여대협 의장 임후보자 유세 및투표 5기전여대협의장 선출(선거위원장:충청여대협 건준위원장) 5기전여대협 의장님 응립공연 선거위해체
	3부<본회의②>	회순통과 및 안건확정 강령과 규약개정 총노선 토론 및 확정 (발제자:부경여대협의장) 특별 결의문 채택 및 결의문 낭독(남여대협의장)
17:30 ~ 17:40	휴식	
17:40 ~ 18:10	투쟁찬포식 및 시민 선전전	



회의 진행세칙

1. 회의 진행의 원칙

1)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단, 중앙집행위 인준, 회원 징계 등에 관한 것은 비공개 할 수 있다.)

2)정족수의 원칙

총회의 정족수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을 의사 종족수로 하고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한다. (단, 사고 처리는 재적인원에서 제외한다.)

3)일(·)의제의 원칙

회의는 한가지 의제만을 상정하여 다루고 두 가지 이상의 의안을 동시에 상정하지 않는다.

4)발언자유 원칙

5)다수결의 원칙

6)소수의견 존중의 원칙

7)일사부재의 원칙

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을 그 회기 중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 번한(표결심의를 동의)을 사용하여 의결할 수 있다. 번안상정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안건 채택방법 및 회순통과

1)대표자 총회 안건 상정은 중앙상임위원회 안 외에도 대표자의 1/10이상의 연명(규약 제 18조-발의)으로 한다.

2)안건 채택순서에서 원안에 대한 삭제동의안은 찬반토론 없이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3. 의사진행과 관련된 규칙

- 1)발언자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한다.
- 2)발언시 발언자는 소속, 성명을 밝힌 후 먼저 발언의 요지를 밝힌 다음에 무연 설명을 한다.
- 3)각 안건에 대한 대표 찬반 토론을 하고자 하면 사전에 의사진행 요원에게 신청하고 발언 신청자 중 찬반 일인씩을 의장이 지명한다.
- 4)발언시간은 각각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 각 안에 대한 제안설명(발제) 및 토론
 - 질의 답변 및 보충 토론: 5분 이내
 - 의사진행 발언 및 기타: 3분 이내
 *단 발언시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의장이 제안에 의해 출석인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조절할 수 있다.
- 5)발언자의 수는 의장의 제안으로 참석 대표자 1/2이상의 찬성에 의해 제한한다.
- 6)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회를 선포하고 중앙상임위원들로 구성된 의사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정한다.

4. 각 안건에 대한 일반적인 토의 순서

- 1)원안만이 상정되었을 때
 - ①안건상정 ②안건발제 ③질의응답 ④토론 ⑤표결(안건의 성격에 따라 표결한 안건과 결의할 안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단, 의사수렴과 토론 속에서 수정안의 '의사조정위원회'에 의해 조정되면 그에 대한 표결을 한다.
- 2)원안과 다른 안이 상정되었을 때
 - ①안건상정 ②원안에 대한 발제 ③질의 및 응답 ④다른 안에 대한 발제 ⑤질의 및 응답 ⑥원안과 다른 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여부를 논의(중앙 상임위원과 다른 안 제출자와)하고 수정안이 작성될 경우에는 표결에 들어간다. ⑦수정안이 작성되지 않을 때에는 찬반토론을 한 후에 ⑧선택 표결한다.

5. 그밖에 의사진행 규칙은 일반적 회의 진행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전여대협 강령과 규약

전여대협 전문

전여대협은 여성의 자주성을 억압하는 봉건적 사상과 자본의 지배논리를 타파하고 여성의 자주성 실현으로 인간해방을 실현하고자 하는 50만 여학도의 자주적 대중조직이다.

전여대협은 일제 식민지 치하의 여성들의 민족해방투쟁을 계승하여 미제를 반대하고 조국의 완전한 자주화,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주의,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며, 역사의 주인인 청년여학생의 힘과 지혜를 모아 여성해방을 실현한다.

전여대협 강령

1. 여성의 성침탈에 앞장선 미국과 일본을 반대하고 모든 외세의 부당한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 간섭과 침략을 막아내고 민족자주권을 회복하여 여성의 자주화, 조국의 자주화를 이룩한다.

1. 이천만 여성이 차별 받지 않고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고 사회전반의 민주주의 실현의 걸림돌과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하고 국민들이 자주적, 창조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완전히 사회민주화를 실현한다.

1. 조국의 영구분단을 막아내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아래 조국을 통일한다.

1. 학원내 온갖 반민주적, 성차별적 교육과 제도를 반대하고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쟁취하여 학원 자주화를 이룩한다.

1. 여성농민, 여성노동자, 제반 애국적 사회단체와 굳게 연대하여 공동 투쟁한다.

1.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제국주의 문화와 소비 향락적인 문화를 척결하고 학원과 생활 속에서 건강한 민족, 민중적 문화를 일구어 나간다.

1. 50만 여학도가 앞으로 사회에서 민족중흥과 조국발전의 당당한 주체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서기 위한 학문의 습득과 단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1. 백만청년학도와 통일단결하여 투쟁한다.



전여대협 규약

전국여대생대표자 협의회의 규약은 강령의 요구를 충실하게 실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전국여대생대표자 협의회의 규약은 전국여대생 대표자협의회(건)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 민주집중의 조직운영을 기반하는 원칙과 규율이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전국여대생대표자 협의회(약칭:전여대협)이라 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전국 오십만 여학도의 통일단결을 기반으로 여학우들의 학문, 투쟁, 생활적 투쟁적 요구를 구현하고 이를 통하여 학원의 완전한 자주화 실현과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 여성해방을 앞당기기 위해 투쟁한다. 나아가 보다 높은 단결을 위해 전국 총여학생회 연합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의 강령에 근거하여 대표자 총회에서 사업의 내용을 결정한다.

제2장 조직의 구성

제4조 (회원 규정)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전국 각 대학 총여학생회, 여학생대표 조직으로 한다.

제5조 (구성체계)본회의 체계는 전국단위 체계, 지역단위 체계, 지구단위 체계, 총여학생회(기타 여학생대표조직), 단대 여학생조직, 과여학생회조직을 가지며 본회 산하에 8개 지역, 1개 특별지구를 둔다.

1)지역은 서울, 경기인천, 충청,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강으로 구분한다.

2)제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특별지구로 구분한다.

3)각 지역은 지역 실정에 근거하여 그 지역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의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지구의 구성과 분화 또는 통합을 할 수 있다. (단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최종인준을 받는다.)

제6조(가입과 탈퇴)본회의 가입과 탈퇴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1)본회의 가입과 탈퇴는 각 대학 총여학생회 (기타 여학생대표조직)단위로 한다.

2)본회의 가입과 탈퇴는 각 대학 총여학생회 (기타 여학생대표조직)단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본회의 가입과 탈퇴는 각 지역, 지구체계의 가입과 탈퇴와 동시에 이루어진다.

제 3장 회원의 의무와 권리

제7조(권리)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강령과 규약에 의거하여 본회 활동 전반에 참여할 수 있고, 본회의 모든 활동과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권, 결정 참여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제8조 (의무)본회의 회원은 본회를 사수하고 본회의 활동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강령과 규약의 실현, 결정사항을 집행, 보고,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9조 (포상 및 징계) 본회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포상 및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4장 조직의 체계와 운영

제 1절 대표자 총회

제10조 (지위) 대표자 총회는 본회의 최고 권력기구이며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제11조 (구성)

- 1) 대표자 총회는 각 대학교 총학생회장(기타 여학생대표조직의 대표자), 각 지역의장, 각 지구 의장, 특별 지구 의장, 전역대협의장으로 한다.
- 2) 부득이한 경우 참석하지 못하는 대표자의 위임장과 각 지역 의장의 승인으로 위임이 가능하다.

제12조 (권한) 대표자 총회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 1) 본회의 강령과 규약의 제정 및 개정을 한다.
- 2) 본회의 의장을 선출한다.
- 3) 본회의 사업전반에 대한 심의, 인준, 의결을 한다.
- 4) 조직의 해산을 결정한다.
- 5) 기타 중요한 안건을 처리한다.
- 6) 위의 권한 중 강령의 재, 개정, 규약의 재, 개정, 의장선출 및 탄핵, 조직의 해산을 제외한 나머지 권한은 대표자 총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제13조 (정기대표자총회와 임시대표자총회)

- 1) 정기대표자 총회는 1년에 1회로 중앙상임위원회가 개최한다.
- 2) 임시 대표자 총회는 의장, 중앙상임위원회 1/3이상, 대표자 1/4이상의 발의에 의해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3) 정기 대표자 총회의 회기는 3일을 경과할 수 없으며, 임시 대표자 총회는 매년 당 2회 이내로 하며 회기는 2일을 경과할 수 없다.
- 4) 정기 대표자 총회는 정기 대표자 총회 15일전에 공고하며, 임시총회도 15일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확히 하여 공고한다.

제2절 중앙상임위원회

제14조 (지위) 중앙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상설기구이다.

제15조 (구성) 중앙상임위원회는 의장과 8개 지역의장으로 한다.

제16조 (권한) 중앙상임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갖는다.

- 1) 중앙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전체 활동을 관장하고 대표자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강령과 규약에 의거하여 운영, 지도하고 책임을 진다.
- 2) 중앙상임위원회는 중앙집행간부를 임명한다.
- 3) 중앙상임위원회는 대표자총회를 개최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 4) 중앙상임위원회는 대표자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한다.

5)규약이나 시행세칙에 대한 해석의 권한을 갖는다.

6)본회의 재산을 관리한다.

제17조(운영)중앙상임위원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의장 및 중앙상임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의장이 소집한다.

제3절 의장

제18조(지위)의장은 본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한다.

제19조(권한)의장은 본회 전반에 관한 지도와 관리를 한다

제20조(선출)의장은 대표자 총회에서 선출하고 선거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두어 정한다.
(단,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시에는 중앙상임위에서 의장 권한 대행을 선출한다.)

제21조(임기)의장의 임기는 당해 대표자 총회로부터 다음해 중앙상임위가 구성 될 때까지로 한다.

제4절 중앙집행위원회

제22조(지위)본회의 정책연구, 생산, 집행을 담당하고 총화 한다.

제23조(구성)집행위원장, 정책국장, 연사국장으로 구성한다.

제24호(역할)

중앙집행위원장은 본회의 모든 사업을 총괄하며 집행을 책임지고 총화 한다.

정책국장은 본회의 모든 정책을 연구 생산한다.

연사국장은 타계총계급과 연대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제5절 임시체계

제25조(지위)임시체계는 전기의 사업과 체계에 대한 계승과 혁신사업과 당기 대표자 총회까지 사업을 수행하는 체계이다.

제26조(임시의장)임시체계는 중앙상임위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의결체계)임시체계의 의결집행체계의 지위와 운영은 정식체계로 규정하며 규약에서 정한 바 모든 권한을 가진다.

제28조(사업)

1)계승과 혁신사업을 수행한다.

2)해당시기 일상전반 사업을 수행한다.

3)대표자 총회를 선전한다.

제5장 재정

제29조(회계년도)본회의 회계 년도는 당년 3월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 28일로 한다.

제30조(회비)본회의 재정은 정기회비, 특별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1)정기회비는 각 학교 학생회비의 3%로 한다.

2)특별회비는 중앙상임위의 결의로 편성하여 각 지역(지구)별 또는 학교별로 구분한다.



제31조(재정관리)본회의 재정관리는 중앙상임위의 승인을 받아 집행위에서 관리한다.

제32조(예산과 결산)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대표자 총회에서 심의, 인준, 의결한다.

제33조(회비관련 징계)본회의의 관련된 징계는 시행세칙을 두어 정할 수 있다.

제6장 시행세칙

제34조(시행세칙) 본회의의 시행세칙은 본회의의 필요에 따라 대표자 선출, 선거, 포상과 징계, 특별기구 등에 관한 시행세칙을 규약에 근거하여 둘 수 있다.

제7장 상벌

제35조(포상)본회의의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회원에 대하여 포상한다.

제36조(징계)본회의의 규약을 위반하거나 조직에 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제명, 자격정지, 직위해제, 공개사과,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37조(회의 성립)모든 회의는 제적 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38조(의결)제 회의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탄핵이나 강령의 제 개정, 조직의 해산에 있어서는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표결)인사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한다. 단 출석인원중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효력발생)대표자 총회의 의결을 얻는 즉시 의장이 공포하고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규약의 준용)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과 절차 및 관례에 따른다.

제3조(제정)본 규약은 1995년 4월 30일에 제정한다.

시행세칙 1-대표자 선출

제1조(목적)본 세칙은 본회의의 대표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둔다.

제2조(대표자)본회의의 대표자는 각 학교 총학생회장(기타 여학생대표자조직의 대표자)으로 한다.

제3조(위임권행사)부득이한 경우에 참석하지 못하는 대표자의 위임장과 각 지역의장의 승인으로 위임이 가능하다.

시행세칙2-선거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본 세칙은 본회의 의장 선출을 위해 둔다.

제2조(선거방식)본회의 선거방식은 보통, 비밀, 직접, 평등으로 한다.

제3조(선거권과 피선거권)본회의 대표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구성)

- 1)본회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중앙상임위에서 중앙상임위원 1일은 선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대표자중 3인으로 한다.
- 2)본회의 선관위는 대표자 총회 소집공고와 동시에 구성한다.
- 3)본회의 선관위는 선관위장의 선임에 따라 사무, 홍보, 행정등 선거사무에 필요한 집행간부를 구성하여 선거사무를 수행한다.
- 4)본회의 선관위는 선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행세칙에 근거한 기술실무 집행간부를 구성하여 선거사무를 수행한다.

제5조(목적) 본회의 선관위는 의장선출을 공정, 신속하게 진행하고 의장을 중심으로 오십만 여학우의 통일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6조(업무와 권한)

- 1)본회의 선관위는 상기 제5조의 목적 실현을 그 업무로 한다.
- 2)본회의 선관위는 상반기 명부 확인 절차를 가진다. 후보자 추천은 총회에서 확인된 선거인 명부에 명시된 자로 제한한다. 단, 투표(대표자·총회)까지 선거인 명부 추가 확인을 통해 투표권을 인정한다.
- 3)본회의 선관위는 일반 사무경비를 제외한 포스터, 자료집 등 각 후보자의 선거활동을 보좌하는 제반경비를 공탁금으로 받는다. 이 제정은 선관위장과 선거본부장들간의 협의회의를 통해 관리하며 대표자 총회시 보고한다.

제7조(업무와 권한의 정지) 본회의 선관위는 의장선출과 동시에 그 업무와 권한이 정지되면 즉시 해체한다.

제3장 의장선출

제8조(선거권과 피선거권)

- 1)본회의 대표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본회의 대표자중 간선직 대표자는 추천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본회의 대표자중 간선직 대표자들과 지구여대협 이상의 중앙집행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예: 회의, 문건)

제9조(후보자 및 입후보자 자격)

- 1)본회의 의장 입후보는 선거일 7일 전에 선관위가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록한다.
- 2)본회의 의장 입후보자는 추천서(대표자 중 1/3의 추천), 자천서와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 3)1인 이상의 후보 출마시 대표자는 복수추천을 할 수 있으며 복수추천을 한 경우 중앙선관위



는 해당 대표자의 복수추천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그 효력을 판단한다.

제10조(선거공고)

- 1)본회의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서류를 검토하고 선거일 5일 전까지 본회의 회원에게 후보자를 통보한다.
- 2)본회의 선관위는 대표자 총회 소집공고와 동시에 선거공고를 내도록 한다.

제11조(선거본부구성) 본회의 의장 출마자는 지역여대협의장을 자격을 갖는 대표자를 선거본부장으로 하는 선거운동본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2조(선거운동 및 유세)

- 1)각 후보자는 선관위의 지휘하에 선거운동 양식을 협의하여 전개한다.
- 2)각 후보자는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각 지역선관위원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3)선거유세는 대표자 총회에서 1회 30분 이내로 하며 정책공약집 발간 등 기타 선거운동은 선관위와 선거본부의 합의하에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당선결정)

- 1)본회의 의장 선출은 제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2)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간의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 3)단독출마의 경우 제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14조(보궐 선거)의장의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을 시에만 중앙상임위 중 권한대행 1인을 선출한다.

시행세칙 3-회비관련 징계

- 1)기간-임시체계의 발족의 기간으로부터 총회이후 한달까지로 한다.
- 2)기간내 미납부 하였을 시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예산안

의장과 증집활동비	
의장 활동비	1000,000×9=9000,000
증집 활동비	50,000×9×2=900,000
각종회의 참가비	500,000
일상사업비	
복사비	40,000×9=360,000
유인물	5000
대중사업비	
출범식	2,000,000
총회	2,000,000
간부수련회	1,000,000
통일선봉대 지원비	300,000
기타 예비비	1,000,000
합계	9,460,000

총노선

민족저주정신이 나의 사상됨을 기습에 세계
 광범위한 여성민중연대의 전면화됨 시작으로
 여학생운동의 대중화됨 실현하고
 여성민중생존권을 위협하는
 침략중 장군독재정권의 방방에서
 전면적 대대결의식을 기본으로
 남북연대의 3차 공동연대로
 일본군 강제 징군 위안부 문제 해결하고
 한반도 여성유권의 근원 주안대군 협력 투쟁을 통해
 조국통일의 불결적 국면에서 주역이 되자

민족사적 전환기를 개척하는

5기 전이대업



【내림버지】

0. 들어가며

◀총노선의 활용에 대하여

1. 총론

◀사상적인 한치의 굽힘없이 투쟁한 선배전사들에 의해 투쟁하는 여학생운동대오의 순결성이 검증되었으며 이를 여학생운동의 대중운동방도 창출로 99여학생운동 대중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

◀여성민중의 자신의 생존권을 찾기 위한 투쟁이 본격화 되고 이는 억압의 본질 미제와의 대격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민족의 운명과 나의 운명을 일치시켜야 나의 운명도 개척된다. 민족자주 정신의 전면화로 2천만여성민중의 삶과 민족의 등불이 되자!

2. 정세

◀여성의 각 계급 계층의 투쟁이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시작으로 자주, 민주, 통일투쟁에서 주어진 사명을 인식하고 적극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대생의 자주의식의 향상으로 여성민중과 함께 민족의 운명개척을 위해 조직화된 투쟁을 준비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여성으로서의 삶을 받아안으면서 자기 요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직을 건설하고 작은 규모의 투쟁을 만들어가고 있다.

◀정권의 농업소의 정책은 250만 여성농민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하고 있다. 생존권의 위협을 주체의 힘으로 뚫으려는 여성농민의 조직은 급속도로 건설 강화되고 있다.

3. 총적 가치와 해설

4. 사상노선

◀민족자주정신을 나의 사상으로 하고 이를 50만 전여대협의 것으로 전면화시키는데 주체가 되자.

◀자주적 여학생운동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 정립하자.

5. 조직 노선

◀여학생운동의 토대 여학생회를 건설 강화하고 여학생운동 대중화의 새로운 국면을 열자.

◀여학생 운동가는 모두가 핵심일꾼다워야 합니다.

6. 대중운동노선

◀여학간부가 대중속으로 파고 들어가 대중운동 정형을 창출하고 여학생회 자기조직을 강화하자

7. 대중투쟁노선

◀반미자주화 투쟁

◀반파쇼민주화 투쟁

◀조국통일 투쟁

◀공동연대투쟁



0. 들어가며

총노선의 활용에 대하여

총노선이 총노선 담기 위해서는 어떠한가 생각해 봅니다.
 무수하게 떨어지는 문서의 홍수에서 또하나의 부담으로만 존재한다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총노선은 매시기 학우대중을 주인으로 세우기 위해 나서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간부일꾼들이 먼저 찾아지고 입어지는 참고서이자 학습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학우대중에 근간하고 여학우들의 지혜와 투쟁력을 발동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자기 운동을 풀어가기 위해 일년이 가도, 10년을 읽어도 또 읽어보고픈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총노선의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이나 일정, 방도 등은 매 시기 사업계획서에서 제출되어야 할것이니 총노선에서는 간부일꾼들의 사상적 각과 신념을 확고히 하는 것을 큰 축으로 정리해야할 것입니다.

1. 총론

● **사상적인 한치의 굽힘없이 투쟁한 선배전사들에 의해 투쟁하는 여학생운동대오의 순결성이 검증되었으며 이를 여학생운동 대중운동 방도 창출로 99여학생운동 대중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

98년은 96, 97년을 거치면서 정권의 한총련 씨말리기에 대오는 잠시 혼돈과 방황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상적 중대를 명확히 세우고 원칙을 고수하였던 수많은 우리 신념의 강자에 의해 98년 한총련이 걸어난 길은 영광의 길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 적들의 분열 와해 책동에 한치의 굽힘없이 한총련을 사수하고 생명을 지켜나갔던 동지들 속에 우리 여학생운동 대오의 비중과 역할은 아주 컸습니다.
 적들의 어떠한 회유와 협박이 있어도 동요하지 않고 학우대중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총련을 사수하고 주어진 역할과 맡은바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결의하였습니다. 각 대학 총여학생회장님들의 이러한 결의로 96, 97년 대학의 투쟁흐름을 다른 어떤 한총련 대의원 보다 먼저 결의하면서 핵심으로써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러한 선배들의 피와 눈물로 뿌린 씨를 이제 98년에 꽃을 피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98년은 97년 투쟁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변혁의 과제와 여학생운동의 과제에 대해 함께 사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자주적 여학생운동을 풀어갔던 우리 일꾼들에게는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식민자 남단의 청년학생에게 마땅히 요구되어지는 투쟁의 과제와 여성이라는 명제로 풀어가야 할



투쟁의 과제들 속에서 나름의 어떤 창조적인 실천투쟁의 방도를 내어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문제 또한 단순히 지식으로서, 이야기 거리로서가 아니라 여학생운동에 대한 신념으로 체득하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사상은 사람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한 사회적 의식인 것만큼 실천투쟁 속에서 체득해야 공고한 것으로 되며 자주적 여학생운동 또한 원리적으로 인식할 뿐 아니라 실생활을 통해 체험하여야 그것이 확고한 의지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시기 요구되는 투쟁의 과제에서 우리 여학우대중의 삶을 옥죄고 투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 청년여학우는 무엇을 가지고 지금을 주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예년과 다르게 매시기 전여대협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기층핵심일꾼을 발동하면서 투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여학생회의 자기 투쟁을 조직하고 자기대중을 만들어내면서 고유투쟁속에서 전여대협을 강화하고 한총련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300차 수요집회를 전국단위에서 대중적으로 성사하고 적들의 광폭한 탄압에도 5월 전여대협 총회를 성사하면서 의장님을 힘있게 응립하고 출범식과 수련회 등을 일꾼들의 힘으로 만들어내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철거투쟁에서 한순간도 늦추지 않고 끊임없이 투쟁을 조직했으며 조국통일 투쟁에서도 전여대협 통일선봉대를 조직하고 투쟁했습니다.

이는 여학단위가 형식적인 틀만 있거나 여성문제만을 수박겉핥기로 이야기하는 조직이 아니라 투쟁으로 단위 대중운동을 만들어가는 조직이라는 믿음을 주게 되었습니다.

한총련 사수도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 대중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기반으로 만들어가는 대중운동을 그리면서 한총련의 대중화에 중요한 자기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하게 놓쳐왔던 것이 있습니다.

핵심일꾼들은 투쟁하는데 그리고 왜 이렇게 투쟁하는 것인지는 아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여학우대중을 투쟁의 주인주체로 세워내어 투쟁을 함께하는 방도를 알지 못한 일꾼들이 많았습니다. 광범위한 여학우 대중을 자주적 여학생운동의 주인주체로 세워내기 위한 고민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으면서 그의 구현을 아직 완전히 실현시키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자주적 여학생운동의 대중투쟁 구현방도를 실사구시적으로 창조해 내고 전여대협 50만 여학우 모두를 주인으로 세워내는데 우리 여학일꾼들의 사명과 역할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기에서 99년의 핵심적 과제가 도출됩니다.

세련된 여학생운동의 대중운동방도가 창출되어야 한다.(대중의.조직화, 대중투쟁, 대중투쟁형태와 투쟁방법)

단위의 투쟁역량을 축적 장성시키자면 대중을 의식화하는 것과 함께 그들을 조직화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분산된 비조직적인 대중을 가지고서는 변혁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변혁의 과제는 오직 조직화된 민중의 힘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주적 여학생운동 또한 간부일꾼들만이 아니라 조직화된 여학우대중이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학우대중은 어떻게 여학생회 두리로 묶어세울수 있을까요?

대중의 조직화는 그들을 의식화하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대중투쟁 속에서만 더욱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대중투쟁은 그 자체가 집단적인 공동행동이니 만큼 비록 작은 규모의 자연발생적인 투쟁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발기자와 조직자가 있고 대중의 단결된 힘이 동원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대중투쟁은 광범위한 대중을 조직화할 수 있는 더없이 유리한 계기로 되는 것입니다. 그 뿐아니라 대중에게 조직의 필요성과 그 위력을 보여주며 그들의 조직성을 키워주는 학교로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학우 대중에 근간하고 그들을 투쟁의 주체로 세워내는 대중투쟁방법에서 간부일꾼이 여학우 대중의 준비정도를 재단하고 소극성을 보이며 대중투쟁을 제안하기를 꺼리거나, 대중투쟁을 제안한다 하더라도 의식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과도한 투쟁제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대중운동을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는 대중운동의 투쟁형태와 투쟁방법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조성된 정세와 주체의 준비정도를 분석해내는 능력등이나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을 올바르게 결합하는 것, 합법 투쟁과 반합법, 비합법투쟁을 적절히 결합시켜 나가는 것 등을 원칙적으로 잘 아는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중운동을 벌여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를 하더라도 원칙적이고 세련되게 하지 않는다면 올바르게 대중을 주인으로 세워내는 투쟁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우리 여학생회 일꾼들은 그간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론에 매몰되면서 구체적인 이론의 실현방도로 투쟁을 만들 것을 고민하지 못하였는데 그래서 놓여지는 사업만하고 만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일이 끝나고 나도 성과가 남지 않고 일꾼들만 지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대중운동과 대중투쟁의 구현 방도를 잘 알면서 여학생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여성민중의 자신의 생존권을 찾기 위한 투쟁이 본격화 되고 이는 억압의 본질 미제와 의 대적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98년은 여성운동을 진행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한국여성단체연합(이후 한국여연)을 중심으로 각급 각계층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받아안고 투쟁을 활발히 전개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남한사회 여성운동의 한 획을 그어가고 있는 여성단체들의 역량향상은 물론이고 여성운동의 중심을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가진 계층의 내용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투쟁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낳았던 때입니다. 예를들면 IMF이후 여성노동자들이 정리하고 0순위로 내몰리고 부당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전환의 형태로 불법적인 행각이 성행하면서 이에 분노한 여성들은 한국여연을 중심으로 여성노동권 확보와 부당한 정리해고 반대라는 사안으로 1차 민중대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IMF이후 예산삭감이라는 이유로 농가의 의료보건의 혜택이 없어짐으로써 여성의 건강권 확보



가 위협받게 되자 그또한 여성단체들이 함께 투쟁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전의 여성단체들이 한국여 연을 중심으로 중산층 여성권 확보, 자유주의 시민운동의 한내용을 맡아왔던때와는 달리 98년은 노동자와 농민의 삶에서 나온 투쟁사안들을 공통되게 자신의 투쟁사안으로 받아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중산층 여성운동만 지향하다보니 일정 터부시해왔던 노동자와 농민의 삶까지 한국여연이 폭넓게 받아안게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사회에서 여성문제의 본질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통령 산하에는 '여성특별위'가 만들어졌고 각계에서는 갈수록 여성권이 확보되고 있는 등의 예를 들면서 현정권이 친여성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당면 투쟁사안을 적극적으로 주동적으로 풀어가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99년 초기에는 표면으로 드러나는 객관적인 상황만을 보고 각 여성단체에서는 투쟁하기보다 먼저 타협하려 들 것입니다.

지금의 총과산국면에서 정권의 사대매국성을 청산하고 외세를 몰아내지 않는한 어떤 여성민중개개인의 생존권도 확보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기에 지난 민중대회에서 증명된 것처럼 투쟁을 통해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성민중의 주력부대 노, 농, 청은 자기의 역할과 사명을 잘 알고 당면한 시기 뿐때있는 투쟁으로 주인으로 당당히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민족의 운명과 나의 운명을 일치시켜야 나의 운명도 개척된다. 민족자주 정신의 전면화로 근천만여성민중의 삶과 민족의 등불이 되자!

여성민중의 자주성 실현을 위한 투쟁은 복잡 간고하면서도 장기적인 투쟁이 요구되어집니다. 먼저 국토가 분단되고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 통치아래 있는 조건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찾고 사회를 민주화하여 조국을 통일해야 하며 더불어 여성이기 때문에 가해지는 억압의 기제에 대해 운동해야 합니다.

특히나 99년 한반도는 본격적인 반미항전과 조국통일의 역사가 개척되고 있는 지금의 시기에 모두가 하나같이 일어나서 승리로 결속짓기 위해서는 민족자주정신을 전면화해야 하는 것은 아주 중요 합니다.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 각계 애국민중들의 자주적 진출은 구체적으로 여성민중들의 실천적인 투쟁으로도 보여지고 있듯이 자주역량과 지배주의 세력 사이에 첨예한 대결국면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기에서 청년여학도는 민족자주정신을 자신의 사상으로 하여 자기 운명에 대한 자각과 자기 운명과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려는 의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간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치에 무관심하고 역사인식과는 무관하게 교육받아왔던 봉건적인 의식들을 스스로가 깨고 철학적 세계관에 기반하여 민족의 운명과 나의 운명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제국주의 억압의 도구인 성차별이데올로기의 실체만 알아도 제국주의도 알 수 있고 여성민중의 삶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민중이 자기 삶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서는 청년여학우가 먼저 여성민중의 삶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면서 혁명적 인생관을 무장하고 이를 전면화하고 대중화하기 위해 학우대중에 대한 믿음을 가지며 정세를 주동에서 받아들여 과학적 정세인식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민족자주 정신은 한국사회에서의 여성문제는 식민지 사회이면서 기형적인 자본주의 즉 반자본주의 사회의 사회성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를 무시하고 성차별적인 요소만을 가지고 투쟁한다면 중국에는 여성해방을 이루어 낼 수 없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세계의 여성운동을 비롯한 한국의 여성운동흐름만 알아도 증명되는 과제입니다.

자주적 여학생운동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이를 대중화하면 민족자주정신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 여학생운동가는 모두가 핵심일꾼이 되어 대중투쟁과제를 대중속에서 적극적으로 실현시켜 여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자.

우리 운동은 주체의 운동이라 하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여건이 되고 토대가 구축된다고 해도 자주적 주체가 서 있지 못하면 결코 운동이 일어날 수 없다.

우리 여학생일꾼들은 100만 청년학도 중 50만을 대표하고 있지만 아직 운동의 수준으로 보면 주체의 양적 보장이 완전하게 실현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각 단위 여학생회 조직속에서 운동을 만들어가고 있는 일꾼들은 모두가 핵심의 징표를 나의 징표로 하고 여학생운동의 개척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중의 운동요구가 높아지고 자신 개인의 운동성이 조직으로 모아지기를 바라고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조직화해야 하는 일꾼들이 이를 잘 포착하고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대중은 집단적인 공동투쟁의 과정에서 단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조직을 결속하는데로 지향하게 됩니다. 또한 민중은 대중투쟁의 과정에서 조직의 위력을 체험하게 되며 조직된 역량으로 반민족 반민중 세력과 맞서야만 자신의 자주권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 일꾼들이 해야할 몫입니다.

대중투쟁이야말로 민중을 각성시키고 그들의 자주의식화를 촉진시키는 수단입니다.

전쟁책동 분쇄 투쟁, 반미 자주화 투쟁, 반파쇼 민주화 투쟁, 조국통일 투쟁에 우리 여성민중이 주인으로 우리 여대생이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합시다.

● 1919년 민중연대 전면화의 요구에 맞게 여학단위 공동연대투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첫 포문을 힘있게 열자. 투쟁으로...



2. 정세

미국은 한민족의 앞길에 핵침화를 계획하면서 자신의 제국주의적 본성에 기반한 출로를 만들어 보려하지만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중심으로 한 민중들의 투쟁은 이제 대격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사대매국 세력의 민중탄압은 우리 여성민중들에게도 구체적으로 행사되었습니다. 일본군 강제 종군 위안부 문제에서 완전한 해결지점을 확보했다고 보는 이는 7천만 민중 중 단 한명도 없으나 유독 김대중 정권만은 다음세기를 맞이하는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 모색을 위해 소위 정시대 문제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니 눈 감아주자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강제종군위안부와 하등 다를바없는 공창제도라는 것을 들고 나와 입법화하는 것이 어떠한 식으로 떠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철저한 전쟁준비의 하나입니다. 최신식 무기와 완벽하게 훈련된 병력이 전쟁을 위한 최선의 준비태세라면 그와 더불어 그 옛날 일제가 한반도를 침략했을 때 처럼, 군의 사기 고조를 위해 여성을 대(?)는 것 또한 필요하지 않을 까하는 정권의 꼼꼼한(?) 준비인 것입니다.

자신의 딸들을 침흘리고 있는 미국의 폭도들에게 팔아넘기는 파렴치하고 반인륜적인 부모님이 세상 천지 어디있단 말입니까 현 정권의 본질은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책동에 앞뒤가리지 않고 있는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에 아부굴종하면서 민중들을 탄압하는 기수로 있는 김대중정권에 대한 우리 여성민중들의 분노는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일 신가이드라인을 반대하고 민중생존권을 탄압하면서 여성의 모성권마저 산산조각내고 있는 정권에게 여성노동자와 빈민 여성, 여성농민, 그리고 여대생, 더불어 여성의 이중적 모순에 항거하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군 강제 종군 위안부의 문제또한 그간 정대협을 필두로 한 여성들의 투쟁으로 4천만의 해결의 지로 모아내는 과정이 있었고 이제는 남한민중만의 요구가 아니라 7천만의 요구로 모아내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 정세개괄(여성주체 정세)

<총론>

99년!

IMF를 통한 경제침탈이 2년째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정리해고는 더욱 가속화되고 그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정리해고, 비정규직 전환의 확산은 여성노동자로 하여금 투쟁을 만들게 하고 있고, 더우기 그 과정에서 사용자측의 탄압방식은 무차별구타와 성추행, 성폭행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실업자가 대졸여성을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학원내에서는 단지 졸업을 앞둔 4학년뿐 아니라 모든 여대생들이 자신의 문제로 절실해져 있으며 또한 이것이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당면한 자신의 문제를 집단의 힘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대생 먹고살기 운동본부' 등의 조직이 결성되는 예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맞서 임시적 인턴직이나 대학원 진학의 길등 여대생들에게 주어지는 진로가 한정적임을 틈타



결혼이 무슨 히든카드가 되는양 '여성은 가정으로' 라는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여대생들의 자주적 진출의 요구를 막아나설 것입니다.

또한 조국통일의 과제에 있어서 자기정착없이 소극적으로 일관하던 여성단체 흐름에서 정대협이 2000년 전범법정을 준비하면서 남과 북의 여성들이 공동의 과제를 가지고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대협은 한국여연의 회원단체로 한국의 여성단체들과 의사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범법정의 국제 실행위원회에 이북의 여성들이 함께함으로써 민족 대단결 실현을 위한 소중한 첫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실행위원회의 회의가 서울에서 있었지만 정권의 창구단일화 논리에 의해 중국과 이북의 여성들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부가 진정 통일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각계 각종 민중의 교류를 보장해 주면서 완전한 조국통일이 실현되기 전에 서로간의 반목을 없애고 동질성을 회복하도록 적극 지지하여야 한다는 것은 상식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정권은 '일본군 강제 중군 위안부' 문제가 온 국민의 광범위한 요구에 의해 해결의지가 확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이북이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의 방문을 막아 나서고 있는 모습에서 정부의 통일정책이 얼마나 허구적인지가 드러났습니다.

이때 정대협을 비롯한 각 여성단체들은 정권의 본질을 보게 될 것이며 여기에서 여성단체의 통일운동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고리로 각 여성단체들이 이북 어린이 돕기 등의 형태로 이북을 수혜의 대상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올바른 관점과 견해로 통일운동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대생>

99년은 많은 것을 준비하고 실행하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우선은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준비하여야 하고 여성억압의 기제들을 더욱 가속화시켜 제거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기계적으로 어느 하나가 끝난 다음에 다른 하나를 해야 한다든가 혹은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역사적 순차성이나 특수성 같은 것을 무시하고 순전히 논리적으로만 전개하게 되는 것이 되고 결국 실천과 동떨어진 이론으로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조국이 미국의 지배에 있는 이상 여성문제를 본질적으로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식민지성이 양산하는 여성억압의 과제를 가지고 조국통일 투쟁을 함께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국통일을 저해하는 반통일 세력을 척결하는 투쟁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미 드러난 것처럼 반통일세력은 김대중 사대정권과 미제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김정권에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하기에 우리는 명백히 김정권에 대해 전선을 명확히 하고 퇴진투쟁에 적극 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여타의 여성단체는 김정권의 반여성적이고 반민중, 반민족, 반통일적인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일정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기에 변혁운동의 주력부대라고 할 수 있는 여성노동자, 여성농민, 청년여학생중에서 원칙을 틀어쥐고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여학생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게 제기됩니다.

어느 계급, 계층보다 자주적 여학생운동단위가 핵심부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야 하는 임무가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대생들의 자아의식이 지속적으로 깨어나면서 자기 정체성찾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대학에서 여대생의 비율을 보면 그 증가속도가 최근 몇 년 전부터 큰 폭으로 상승되고 있습니다. 대학내에서 여대생의 구성비율이 높아지는 이런 현상과 함께 대학내 여성학 강의가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대생들에게 성담론이 광범위하게 확산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는 20년동안 여성이라는 성이 가져다주는 편견 때문에 자신의 자주적 요구가 무엇인지도 외면 당하며 교육받아온 이전의 모습과 달리 주변의 입장이 아닌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자신이 무엇을 하여야 하며, 무엇에 더욱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를 알아가는등, 자아의식의 성장과 자기 정체성 찾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힘든시기가 지속되는 속에서 여성의 본성적인 기질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여성은 두려움이 많고 문제를 대함에 있어 수동적이고 사회의 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 자기의 문제로 바라보는데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인식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기가 닥쳐오면서 여성특유의 책임성과 강인함, 적극성이 보여졌으며 99년에는 더욱 발현될 것입니다. 이는 항일무장투쟁시기 한명의 여성도 변절하지 않았으며, 96년이후 정권의 한총련 대의원 사퇴강요와 한총련 탄압에 맞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여학생운동을 반미, 반파쇼, 조국통일 투쟁으로 묶어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한총련의 정당성을 얘기하며 한총련 대의원 탈퇴공작에 맞서 불탈퇴 선언을 진행하고 어느 단위보다 더욱 한총련으로 결사옹위 결사보위 원칙으로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99년에도 이러한 여성전사들의 강인함과 굳은 의지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유래없이 올해는 벌써 3월에 탈퇴강요와 협박이 있었고 정권의 위기상황으로 볼 때 탄압의 양상과 구도는 더욱 광폭하게 진행될 것임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여성전사들의 한총련 사수의 의지는 벌써 대중들에게는 무한한 믿음을 주고 일꾼들에게는 그 신념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대생들에게 남아있는 엘리트 의식으로 인해 기층 여성민중의 삶을 자기삶으로 절실하게 받아안지 못하는 현상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99년 민족자주 정신의 전면화로 계급의식을 깨고 민중을 중심에 두고 민족을 중심에 두어 투쟁으로 삶을 개척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남사회는 여전히 외세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고 제국주의에 사대하며 또하나의 조국인 이북에 대해 여전히 긴장국면을 형성하는 식민지국가이며 자본주의 제도가 기형적으로 나타나는 반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이속에서 기지촌의 여성은 식민지의 산물로 필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대생은 이들의 삶의 모습이 자신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자신과는 다른 별개의 모습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지촌 여성들과 같은, 침략세력에 이용당하고 민족에게 소외받는 여성민중들의 삶을 담보하는 투쟁에 나서기는 한데 자신 또한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떨어지면서 절실하게 투쟁을 받아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한국사회의 사회성격을 자기것화 하지 못하므로(자신의 삶과 연관시켜 사고하지 못하므로) 인해 연관성을 찾지 못한 원인에서 기인합니다.

따라서 민족의 운명이 침략세력에 의해 어떻게 유린되고 그것은 여성민중과 나의 삶에 어떻게 반영되며 따라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잘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성노동자>



98년 본격적인 경제침탈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정리해고가 진행되면서 대량의 여성실업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 대부분 불법적인 것이 많아 여성사업장의 노조나 일반사업장의 노조나 가릴 것 없이 여성정리해고 0순위반대라는 구호가 내걸렸습니다. 99년이 오면서 대기업의 빅딜이나 경제침체는 여전히 존재하면서 여성 정리해고는 합법적인 공간에서 더욱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반대투쟁에 대한 탄압은 더욱 강도를 높혀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농협사내의 670개가 넘는 사내커피숍이 거의 돌중 한명은 사퇴를 강요받아 지금은 10쌍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등에서 속명론적이고 어쩔수 없다는 논리로 자신의 정리해고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대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이 투쟁을 준비하고 결의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선언'이라는 여성실업자조직과 같이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노조를 결성하는 조직의 성과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어노협으로 걸려오는 전화의 대부분은 여성의 부당한 정리해고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하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여노협, 민우회를 중심으로 지난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노동자대회를 성사시켜 내면서 여성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을 과시하고 이후 당면 투쟁을 힘있게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변혁운동의 주핵심부대가 되어야 할 노동계급이 당면한 생존권 문제에 집중하여 변혁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활발한 활동과 합의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생존권 사수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99년 시기에 서 요구되어지는 것으로 충분히 변화발전된 투쟁을 하고 있으며 서서히 김대중정부에 대한 명확한 전선을 그어내면서 투쟁을 조직화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지속 상승되고 있으면서 그것이 장기적인 투쟁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면한 생존권 투쟁을 통해 반미의식을 고취시켜가는 과정으로 조국통일운동에 중심이 되고자하는 수순밟기의 자기 노력이 미약하나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근거들 또한 많이 보이고 있는 데 앞서 밝힌 사항에서 보여 주었듯이 대대적인 정리해고의 주원인을 명확히 미국으로 보고 있는 지점이나 정대협에서 정신대 문제를 남과 북 해외가 함께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등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 ⊆ 반대! 성차별적 고용조정
- ⊆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
- ⊆ 비정규직 차별 해소!
- ⊆ 여성실업대책 수립!

<여성농민>

2천만 여성민중의 변혁운동을 책임지는 핵심부대가 될 여성농민조직은 4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하 '전여농')을 제외하고는 정확히 활동의 상을 이해하고 어렵고 관변적인 성향을 가진 단위가 많아 우리는 전여농을 중심으로 하는 여성농민정세를 살펴보고자 하며 전여농과의 연대를 중심으로 전여대협의 농학연대를 실현하여 갈것입니다.

전여농은 한국어연 산하 단체로서의 활동과 전연 회원단체로서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총회를 거쳐 98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새롭게 임원진을 꾸려 99년의 힘찬 투쟁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99년 투쟁을 결의함에 있어 정권의 규정이 시급하게 나서고 있는데 전여농은 한국어연의 입장하고는 달리 김정권 규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김정권의 여성농민 정



책에 대한 1년 평가가 이루어지지않아 규정하기 힘든 상황이나 98년 김대중정부의 여성농민정책에 일정 많은 성과를 찾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농림부내에 여성농민국이 생겨 객관적으로는 여성농민에 대한 고민이 있음을 김대중정부가 표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체 농민운동과 결부하여 바라보고 현실적인 문제로 본질을 바라본다면 기층 여성농민을 위한 어떠한 정책도 실현된 것이 없기에 99년의 핵심과제를 김대중 정권과의 입장정리를 명확히 할 것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여성농민회 조직이 확대 강화되고 있어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성농민회에서 일하는 분들의 열정이 너무 높아 아주 의욕적으로 99년을 결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여농과 전여대협이 99년에는 이전과 같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연대가 아니라 지속이고 수준높은 연대의 실현으로 여성농민부대를 변혁운동내에서의 주핵심동력으로 일떠세워야 할 것입니다.

250만 여성농민의 하나된 힘으로 투쟁하는 전여농은 지난 2월 5일 8기 1차년도 대의원 총회를 진행하였다.

전여농은 98년 한해 여성농민 주생산작목에 대한 생산비 보장과 대통령 공약사항 실현을 위한 사안으로 투쟁하였으며 시기별로 제기되는 서명작업이나 전국여성농민대회등도 빠뜨리지 않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확대, 강화사업과 교육, 선전사업등도 진행하였으며 전국에 존재하는 4개의 여성농민운동단위와 전체 여성운동과 전체 민민단체들과의 연대에서도 활발히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에따른 98년은 총평가는 이렇습니다.

⊆성과는 여성농민의 전문인력화등 여성농민정책을 제시하고 실현한 것과 중앙정부, 지방단체와 각급단위 여성농민의 교섭력이 확대되고 사업의 영역과 정치력 확장, 전여농 공간체계 확립을 위한 진행, 여성농민대회를 통해 직접지불제 확대실시 요구로 여성농민의 노동가치 실현을 위한 투쟁의 첫걸음, 교육사업의 새로운 유형과 형식 마련, 기관지 정기화로 전여농 선전사업의 토대마련, 재정사업의 진행으로 재정확립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어내었습니다.

⊆더불어 98년에 나타난 한계에 따른 과제는 여성농민운동의 중장기적 전망마련으로 여성농민운동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계획으로 활동할수 있도록 하는것과 중앙조직과 지역조직의 유기적 관계마련을 위한 모색, 1년 1기를 관통하는 사업의 진행을 위해 좀더 구체적인 정책제시와 실천사업 설정, 영농일지 작성의 지속적 실천홍보, 지역간의 편차 해소, 통일운동에 대한 활발한 모색, 정보화 사업 추진 등의 과제가 도출되었습니다.

⊆농민운동계에서 전망하는 99년 정세와 농민운동의 방향

가) 정세는 정치, 경제, 농업등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먼저 정치정세에 있어서는 정치권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정쟁만이 난무한 상태로 여당의 집권능력의 부재와 야당의 자리찾기 노력부족 등을 들고 있으며, 개혁의지가 미흡한 부분을 짚고 있습니다. 이는 인권위 설치나 부패방지법에서 특검제의 도입, 안기부법의 폐지등이 추진되고 있지않음과 비개혁적 인물의 정권 참여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세에 있어서 겉으로 IMF의 경제위기가 사라지고 있는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정리해고 난무와 기업들의 도산, 실업대책 미흡, 재벌들의 문어발식 영업구조를 형식적으로 해소하는 것, 경영에 대한 투명성 보장의 미흡, 경제의 총체적 책임이 재벌과 대주주의 경영부실에 따른 것인데도 정확히 짚어내지 못하고 그에따른 대책을 세우고 있지않은 것에서 여전히 우리 경제는 휘청거리

고 그에따른 책임으로 우리 노동자만이 고통받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와 환경보호의 후퇴로 사회적 약자의 권익침해는 가속화 될 것입니다.

농업정세는 정권교체에 따른 많은 기대와는 달리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가경제의 어려움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농산물 수요 감소와 농자재 가격 상승등으로 농가경제는 극심한 타격을 받아 2-3년내 농가의 연쇄부도가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농업관련 예산은 줄어 들고, 농업관련 세제 혜택도 폐지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농업을 단순히 산업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쌀의 조기개방 예상으로 식량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고통의 전담을 농민에게만 안겨주고 있는 것에서 새정부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 농민운동의 99년 과제는 농정개혁 촉구와 쌀의 관세화개방 저지, 농가부채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 촉구, 직불제 확대실시, 재해보상법 제정 등의 과제가 있습니다.

☞ 99 여성농민운동의 방향과 과제

전체적으로 여성농민의 전망은 밝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성농민정책 입안과 사업수행을 위한 근거마련과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 신설로 그에따른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추진과 지역사회에서의 여성농민의 지위향상, 여성농민의식 변화, 여성농민조직의 차별성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따른 여성농민운동의 방향은 조직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다양한 지역상황에 맞는 조직강화 사업과 정세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 있는데 이는 정권교체 이후 1년이 지내면서 정권과의 관계설정이 명확히 정리되지 못한 부분과 1년에 대한 평가와 반성속에서 현정권과의 협상과 투쟁점을 명확히 잡아내야 하는 이유에서 이다. 그리고 세 번째 지향은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삶을 지향해 나가야 하는 것과 여성농민의 상대적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 여성농민운동의 과제

가) 조직적 과제로 여성농민운동조직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하부단위 조직건설로 여성농민운동의 토대강화, 여성농민운동에 대한 자기확신으로 실천력을 높이고 활동가들의 자기역량강화와 책임성 강화 등을 통한 조직확대, 강화에 주력합니다.

나) 투쟁과제로 식량자급 및 기반마련요구를 위해 쌀의 관세화 저지투쟁과 직접직불제 확대 실시와 여성농민의 노동가치실현을 위한 직불제 확대실시를 위해 투쟁합니다.

다) 일상활동 과제는 여성농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활동과 경영일지 작성을 통한 노동가치 평가기준 마련, 활동가 재충전을 위한 교육, 전여농 사업에 대한 선전활동, 지역사업에 대한 지원활동 등을 진행합니다.

3. 총적기치와 기치해설



**민족자주정신이 나의 사상임을 가슴에 새겨
광범위한 여성민중연대의 전면화를 시작으로
여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고
여성민중생존권을 위협하는
김대중 정권퇴진투쟁의 방향에서**

**전민족 대단결의식을 기본으로 남북해외 3자 공동연대로
일본군 강제 종군 위안부 문제 해결하고
한반도 여성유린의 근원 주한미군 철거 투쟁을 통해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에서 주역이 되자**

**■ 민족자주정신이 나의 사상임을 가슴에 새겨
광범위한 여성민중연대의 전면화를 시작으로
여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고**

민족 자주정신을 50만 여학우는 더욱 가슴에 새겨야합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절반의 주인된 역할과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의 본성들을 왜곡하면서 사장당해 왔습니다. 진정 사람이 세계의 주인이라면 세상의 절반 여성들도 그의 역할을 해야 하나 오히려 억압의 고리만 만들어 왔습니다.

2천만 여성민중에게 자기 운명의 주인된 역할을 막아나서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리고 지금은 여대생이지만 곧 예비 여성실업자 대열에 들어서면서 2천만 여성민중이 될 50만 여학도는 2천만 여성민중의 삶과 나의 삶은 어떤 연관성을 가지며 나의 역할은 어떠한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천만 여성민중의 삶과 나의 삶을 일치시켜 혁명적 인생관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현시기 우리운동 앞에 나서는 아주 중요한 과제는 바로 공동연대투쟁입니다. 여성민중이 자기삶의 주인으로 서고자 하는 움직임은 운동의 성장을 이야기 하며 이는 각 계급 계층 별 이해와 요구를 공동투쟁, 연대투쟁으로 묶어 강화시켜야 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변혁의 핵심부대인 노농의 핵심적인 역할과 더불어 청년학생의 청년여학도의 교량자적 역할과 선봉부대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고 광범위한 여성민중들과의 연대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 여성민중생존권을 위협하는



김대중 정권퇴진투쟁의 방향에서

작년 IMF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궁지로 몰린 것은 바로 2천만 여성민중이었습니다. 부당한 정리해고와 불법적으로 정규직을 임시직,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서 여성실직 가장을 비롯해서 여성들의 생존권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던 정권이었습니다. 그 본질 그대로 99년 초 정권은 여성들에게 년지시 공창제도를 입법화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다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미제국주의의 더러운 마수는 한반도의 핵잠화를 초를 다투면서 계획하고 있고 정권은 4.5월 노동자들의 대투쟁에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에게 언제나 처럼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예전 '담요부대'라 불리웠던 중군위안부가 기지촌이라는 곳에서 버젓이 정권의 비호하에 있으며 전쟁이 돌발했을시 이러한 여성들을 합법적으로 되기위해서 공창제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딸을 노랑내나는 폭군에게 팔아넘기겠다는 부모가 한반도 남단의 정권말고 세상천지에 없을 것입니다.

반민중정권, 반여성정권 김대중정권을 퇴진하는 투쟁은 2천만 여성민중이 살길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투쟁만이 정답입니다.

■전민족 대단결의식을 기본으로 남북해외 3자 공동연대로

일본군 강제 중군 위안부 문제 해결하고

한반도 여성유린의 근원 주한미군 철거 투쟁을 통해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에서 주역이 되자

조국통일과 반미성전으로 나아가는 민중의 힘은 거대한 역사적 흐름입니다.

미일의 신가이드라인이 체결되고 한반도내 군사력을 키워가기 위해 극우보수세력을 동원하며 제국주의의 마수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강덕경 할머니를 비롯해서 평생을 일본군 강제 중군 위안부 문제 완전해결을 위해 대일본 투쟁을 벌여왔던 민족의 여성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고 당당하게 한반도내 정치군사적 입지를 든든히 하려하고 있습니다.

청년여학도로써 이의 투쟁은 반드시 선봉에서 풀어야 할 과제였습니다. 95년 남북해외 3자가 함께 연대하여 완전해결하자는 기치로 자주교류를 성사해내고 강제 중군위안부 문제를 광범위한 대중과 함께 공유하면서 지지와 호응으로 수많은 성과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인권단체는 일본에게 즉각 사죄하고 배상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국제관계라는 미명으로 역사를 뒤엎으려 책동하는 사대매국정권과 제국주의의 파괴적인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일본이 있어 진실을 왜곡하려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군 강제 중군 위안부 문제는 이제 남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 전역의 민족의 여성을 유린한 파렴치한 범죄행각인 만큼 남과 북 해외의 여성이 나아가 민족의 문제이니 7천만 한민족이 함께 일떠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한반도 강점 이후 계속되어온 한반도 여성의 유린은 주한미군을 철거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찾으며 조국통일을 이룰때만이 그 뿌리를 완전히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군 강제 중군 위안부 문제의 완전해결과 한반도 여성유린의 주범 주한 미군 철거 라는 남북해의 공동의 투쟁과제를 통해 자주교류를 성사해내고 99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에서 여성민중의 당찬 발걸음을 함께 내딛읍시다.

4. 사상노선

●민족자주정신을 나의 사상으로 하고 이를 50만 전여대협의 것으로 전면화시키는데 주체가 되자.

◀민족자주 정신이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사람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며,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한다.”

“민족자주 정신은 반미 항전과 조국통일의 사상적 기초이다.”

◀제기 배경

- 99년 한반도는 자주역량과 지배주의 세력 사이에 첨예한 대결 국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모든 투쟁에서 민족자주정신을 고수하여야 민족의 앞날을 설계할 수 있고 민중의 자주성을 성과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다.
- 반미 항전과 조국통일의 위업실현에서 민족자주정신을 고수하는 것은 자기 민족의 운명과 민중의 운명을 민중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 민족자주 정신을 견지하는 것은 민중들의 요구이며 지향이다.
-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민족자주정신을 견지하기 위한 기초이다.
-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반미항전과 조국통일을 이루어 가는 것은 민족자주정신을 위한 기본 요구이다.

◀여성민중이 민족자주 정신을 전면화하는데는 필요한 과제

한반도 절반의 주인 2천만 여성민중의 주체적인 역할은 항상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해 주듯이 자신이 여성임을 깨닫고 여성의 존재로써 운명개척의 주인이 될 때 여성의 굴레를 벗고 동등한 인간으로 세계의 주인으로 당당히 설 수 있었습니다. 항일무장투쟁시절 여성전사들은 조국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일치시키면서 식민지 해방 투쟁에서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다해 왔고 YH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나 톱보이 여성노동자들의 운동등 그리고 지금의 각 여성사업장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적극적인 투쟁이 이를 증명해 줍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여성으로 길들여진 우리들은 성차별적이고 봉건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이 자신의 모습인양 포장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여성들은 역사인식이



낮고 정치에 무관심하며 무능하다고 교육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제국주의가 억압의 도구로 성을 이용한 이데올로기를 창출해왔던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 여대생들은 자신의 힘으로 이를 탈피하고 진취적이며 당당한 여성의 본질을 발굴하고 이를 사회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성 또한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이러한 제국주의의 산물인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깨고 자신이 여성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여성으로써 민족과 민중을 위해 할 수 있는 자기 역할을 찾아나갈 때 가능할 것입니다.

- 올바른 역사인식과 정치의식의 확립으로 철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민족의 운명과 나의 운명을 일치시키자
- 항일 여성전사의 혁명정신을 계승하자.
- 제국주의 억압의 도구 성차별이데올로기의 실체를 알고 여성으로써의 자긍심을 발현하여 세계의 주인주체가 되자.

◀올바른 대중관과 민중중심주의 사상으로 무장하자.

◁여성민중의 삶은 곧 나의 삶이다.

여성민중들의 고통을 내 것처럼 여기고 가슴으로 투쟁하지 못하는 모습으로는 민족자주정신을 전면화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성민중들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는 여성민중의 삶과 나의 삶을 일치시키는 올바른 인생관을 확립하는 것과 더불어 올바른 정세인식과 더불어 이것을 여성민중의 삶으로 연결시키는 분석력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일꾼중에 '나는 남자로 태어났더라면 더 멋지게 운동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얘기하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생각의 이면에서 다른 여성민중들을 무시하는 의미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권이 만들어 놓은 논리의 본질이며 여성들의 투쟁성을 사장시키는 자살골을 넣는 행위입니다. 우리 여학일꾼들은 그나마 여성이라는 자신의 굴레를 걷어내고 투쟁의 대열에 함께 하면서 자주성을 실현하고 있으나 다른 여타의 여성민중들은 우리가 만나주지 않은 이상 정권의 놀음에 놀아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식민지 한 반도를 살아가는 모든 여성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깊이 자각하고 반드시 일치시켜야 할 것입니다.

◁학우대중들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학우들이 미국과 현정권의 사상이데올로기 공세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쉽게 투쟁에 일어서지 못하는데 여학우들에게는 거기에서 소극성에 요부형의 여성성까지 가해서 강요받았기에 더욱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학우대중을 간부들의 잣대로 재단하지 맙시다. 자신이 투쟁을 결의하고 변화발전해온 과정을 되돌아보면 우리 여학우들은 누구나 투쟁의 주인주체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세를 주동적으로 받아들여 과학적 정세인식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성민중의 삶을 미제와 정권이 몰래 잠식하고 있는데 모른체 하고 있다면 그런 위험천만한 일이 어디있겠습니까!

미국의 전쟁책동과 김대중정권의 사대매국정책이 한반도 여성민중들에게 어떻게 자주성을 억압



하고 있는가까지 추론해 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인생관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관은 자기 삶의 좌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인생관을 가지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고민 중에 비록 지금은 민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옳고 정당하지만, 아직 졸업이후에도 나는 민중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간부들은 부족합니다. 여학생운동은 아직 사회에서 여성운동으로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토대가 매우 미약하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당면한 정세를 주동있게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여성민중들에게 나서는 투쟁의 과제에 그리 절절하지 못하는 우리 간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민중의 삶을 곧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인주의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오직 자기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을 인생의 최고 목적으로 삼고 일신의 안일만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안일만을 위해 살다가 한 평생을 다한다면 남을 것이란 아무 것도 없으며 보람도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 중심의 세계관과 민중의 삶과 나의 삶을 일치시키는 인생관을 가질 때 우린 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중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집단을 살기 위해 살기 때문에 일생을 집단의 사랑과 존경 속에서 살고, 집단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죽어서도 집단의 추억 속에 영원히 남게 되며 자기 세계만이 아니라 후손을 위해, 인류의 미래를 위해 살기 때문에 역사와 더불어 길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는 끝이 없습니다. 숨은 그치고 심장은 멎어도 그의 숭고한 자주민주 통일의 뜻은 동지들의 혈관과 심장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박동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결코 지금 우리가 하는 투쟁은 학생시절 한번 경험해보는 것, 우리의 이야기는 정당하지만 졸업 이후 나의 삶과 일치시키지 못하겠다는 고민을 훌훌 벗어던지고, 민중의 삶과 나의 삶을 일치시킵시다.

◀올바른 대중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투철한 민중중심주의 사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사람은 사상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상을 지녔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활동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민중중심의 사상이라는 것은 사람중심의 사상이 사회역사적 측면에서 민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청년학생이 민중의 아들딸이고 청년여학도가 여성민중의 딸이면서 자신의 앞길 또한 민중으로서의 삶을 유지하는 것 외에 다른길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사회적 처지에서 우리 청년여학도는 언제나 민중중심의 사상을 기반으로 함이 당연합니다. 이러한 민중중심의 사상은 민족자주사상과도 직결됩니다. 민족의 운명이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좌우되고 민족의 자주권이 유린되며 민중의 자주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적 처지와 조건에서 더불어 그 처지와 조건이 여성민중들에게 여성으로서의 자주권 또한 억압의 도구로만 만든다면 당연히 이러한 민중중심의 사상은 당연히 민족자주사상이라 할 것입니다.

◀민족자주 정신을 여학단위에서 전면화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여성운동의 역사적 근거에서 그 정당성을 찾자,



우리 50만 여대생의 삶과 민족의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민족의 과제와 여성은 어떠한 연관을 가지는가를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간단하게나마 한국의 여성운동 흐름이 어떻게 진전되었고 여성운동의 역사에서 변혁적 여성운동이 어떠한 과제를 설정하고 어떻게 투쟁하였고 그 결과 무엇을 쟁취하였으며 왜 좌절되어 40여년간의 단절이 초래되었는가를 보면서 현재의 여성운동을 조망할 때 비로소 현단계 여성운동의 투쟁의 대상과 과제가 명확해 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여성운동의 과제가 한국사회의 변혁의 과제와 어떻게 결부되며 어떤 민족적 관점에서 이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명확해 질 것입니다.

※ 한국의 여성운동 흐름 개요

세계여성운동사를 볼 때 여성운동은 자본주의의 등장과 더불어 시작되며 제국주의 발달에 조응하여 발전하여 왔다.

민족해방운동의 시기에 식민지 종속국에서 여성운동은 민족해방운동의 일환으로 진전되면서 운동의 내용이 풍부해지고 이론적, 실천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민중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을 방기할 경우 여성은 매관세력에게 장악당하여 결국은 제국주의 지배를 유지시키는 근간이 된다는 것이 인식되었고 여성운동은 여성을 민족해방운동에 동원하기 위한 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차별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면서 동시에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회운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우리나라 여성운동은 일제의 식민지 하에서 시작되었다. 19세기말 식민지화 되어버린 조선에서 여성해방이념이 배태된 이래 해방직후에 이르기까지 여성운동은 그 이념이나 대변하는 계급이해에 따라 몇가지 갈래로 나뉘어져 진행되었는데 크게 보면 두가지 흐름으로 대변된다.

식민지에서 의 해방과 계급해방이 이루어져야 식민지 민중의 절반인 여성도 해방될 수 있다고 보는 여성운동, 즉 당시 사회변혁의 과제인 반제 반봉건을 여성운동의 과제로 설정한 여성운동과 반제의 과제를 설정하지 않고 봉건적 억압으로부터의 여성해방 즉, 남녀평등한, 여권의 확립을 목표로 한 부르조아 여성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식민지에서의 여성운동이 반제의 과제를 설정하지 않을 때 그 운동은 필연적으로 제국주의와 식민지 지배계급의 이해에 봉사하는 반민중적 여성운동으로 전락함을 식민지에서의 여성운동의 경험에서 충분히 보아왔던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험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에서 자유평등 사상에 입각한 여성해방 이념에 의해 여성억압적인 봉건적 관습의 개혁 및 부르조아 민주주의적 여권의 확립을 달성하려는 여성운동은 독립협회 등의 여성교육계몽운동으로 시작되고 식민지화 이후 기독교 여성들의 운동으로 이어진다. 봉건적 억압의 철폐를 목적으로 교육계몽운동의 차원에서 진행된 여권적 여성운동은 가장 먼저 시작되기는 하였지만 독자적 조직을 갖춘 운동으로 실천되지는 못하였다.

또하나의 여성운동의 흐름은 1920년대에 시작된다. 3.1운동 이후 민족운동 전반이 계급분화를 경험하듯 여성운동도 프롤레타리아 계급 여성운동이 시작된다. 20년대 일제의 산업자본이 진출하면서 정미업과 면화공업 등 식량과 원료수출에 부속된 특정부문이 편중적으로 발전하였고, 이 산업에



단순, 미숙련 노동자로 여성이 주로 고용됨으로써 여성노동자가 창출되어 식민지에서 민족적, 계급적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자연발생적 투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교육계몽 차원의 여성운동은 여성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을 받아낼 수 없으면서 식민지 여성의 고통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해방을 모색할 새로운 운동이 요구되어졌다. 여기에 사회주의 이념을 받아들인 여성청년 지식인들이 사상운동이 청년운동으로 축적되었고, 이들이 여성노동자들의 자연발생적인 투쟁에 촉발되면서 마르크스주의 여성운동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1924년 5월 [조선여성동우회]로 시작한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여성해방운동과 교육계몽운동 차원의 여권적 기독교 여성운동은 1927년 [근우회]로 통합되나 1930년 이후 근우회가 해산된 이후 다시 분리된다.

그 수 기독교 여성운동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을 선전, 계몽하는 역할을 하면서 결국 일제의 손에 돌아나는 제국주의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며 마르크스주의 여성운동은 계급조직의 여성부로 재조직되어 적색노조, 적색농조 부인부로 여성활동가들이 결집, 여성대중과의 결합을 모색하였다. 근우회 해산 이후 "노동부인은 계급투쟁의 일부분으로 지하운동에 꾸준히 참가"따라서 30년대 마르크스 주의 여성운동은 20년대 지식인 여성 중심에서 직인 여성들이 노동여성, 농가부인과 결합을 모색하는 시기에 이른다.

해방이 되면서 이 두가지 여성운동의 흐름은 좌, 우익 여성운동으로 나누어져 이어진다. 전반적인 사회세력이 좌, 우익으로 분리되면서 여성운동도 둘로 분리되는데 친일경력이 있는 기독교계 여성들은 우익 정치세력에 가담하면서 남녀평등한 여권의 확립을 재세우는 조선여자국민당, 한국독립축성애국부인회 등의 단체를 조직하였다. 우익여성세력들은 친일경력으로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여성정책도 부재했으며 대중운동에 대한 인식부족과 대중적 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에 여성대중을 위한 일상활동을 거의 벌이지 못했다. 이들은 유명 여성명사 중심으로 우익 정치단체들의 정치회동을 지지하기 위해 여성들을 동원하는데 주력하였다. 1946년에는 반탁운동을, 1947년에는 단정수립지지를 위해 집중적으로 활동하였는데 좌익여성운동에 비해 이론적, 조직적 열세를 면치 못하였으나 미군정의 정책적 지지를 받으면서 점차 세력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한편, 해방에 이르기까지 국내와 국외에서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한 여성해방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신념하에 민족해방을 위해 여성도 함께 투쟁하는 여성운동을 간고하게 벌려나갔던 여성운동을 기반으로 조선부녀총동맹이라는 단체가 조직되고 이 단체를 중심으로 여성운동은 폭발적으로 고양되게 된다. 조선부녀총동맹은 노동여성대표, 농촌여성대표, 활동가대표들이 대표권을 갖고 모여 구성하였는데 적극적인 지도체계를 갖추고 노동여성, 농가부녀, 소시민주부, 인텔리여성 등 광범위한 여성들의 지지와 참여속에 일상 활동과 정치활동을 수행하였다.

미군정의 정책은 시작부터 좌익세력의 고립과 타도로 일관하고 있었다. 미군정과 대결하면서 반제반봉건의 과제를 수행하여 독자적인 자주적 독립국가를 건설하려한 사회세력은 결국 패배하였고 그 결과 남한에는 이승만과 한민당 중심의 단독정부가 수립되게 된다. 여성운동은 미군정을 등에 업은 우익세력의 특세와 미군정에 의한 사회세력은 결국 패배하였고 그 결과 남한에는 이승만과 한민당 중심의 단독정부가 수립되게 된다. 여성운동은 미군정을 등에 업은 우익세력의 특세와 미군정에 의한 좌익세력의 패퇴로 결론지어졌다.

남한에서 좌익여성운동은 탄압과 체포로 소멸, 지하화 되었다.



이렇게 미군정하에서 변혁적 여성운동이 실패한 이후 한국여성운동은 50년대를 거쳐 7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여성대중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기 위한 여성운동이었다기 보다 기껏해야 상류층 지식여성들의 여가선용적 활동에 그쳤고 5.16이후로 이어지면서도 독재권력의 충실한 하수인이었으며, 여성해방을 위한 운동과는 더욱 더 거리가 멀어졌다. 남한에 외세의 지원하에 친미반공정권이 세워진 이래 여성운동도 한쪽 방향으로만 고정되어 친미 반공적 여성운동으로 일관한 여성운동은 체제유지적, 어용적, 지배계급 여성중심적이었으며, 그럼으로써 한국사회의 모순으로 고통당하는 여성대중의 문제해결과 무관한 이름만의 여성운동으로 유지되었다.

우리나라의 소위 여권적 여성운동은 서구의 자유주의적 여권운동이 달성했던 여성의 법적, 제도적 평등조차 달성하지 못했다. 부르조아 여성운동은 시작에서부터 식민지에서의 부르조아 계급의 약화라는 특성으로 인해 미약한 측면을 보이고 있으며, 진보적 성격을 갖지 못하고 있다. 외세가 부여해 준 힘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으며 따라서 반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여권운동의 특징이다. 한편 여성해방을 여권의 확립이 아니라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완전 해방으로 보았을 변혁운동의 기본과제인 반제와 반봉건의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달성될 수 없다고 본 여성운동은 일제의 지배하에서 대중운동으로 지하운동으로 무장투쟁으로 치열하게 전개되어왔으나, 미군정하에서 외세에 의해 맥이 끊긴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다. 민족해방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의 빛나는 전통이 끊겨버린 것이다.

그러나 여성운동의 단절의 역사는 80년대 후반에 이르러 비로서 복원되기 시작하고 있지만 보다 엄밀히 말한다면 70년대에 이미 싹이 트고 있었다.

70년에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불붙어 오르면서 여성운동의 양상은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70년대 여성대중들의 자연발생적인 투쟁속에서 진정한 여성운동의 주체가 형성되고 있었으며 민족적 여성운동이 태동되고 있었다.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극심한 착취에 분노하면서 박정희 독재정권에 저항하고 있던 여성지식인들이 먼저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여성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70년대말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더욱 격렬해지고 Y.H여성노동자들은 결국 유신독재가 무너지는데 일조를 하게 된다. 그러나 80년의 봄은 다시 겨울로 회귀해야 5공독재가 시작되었다. 진보적 여성운동의 모색도 역시 지연되었다.

민주노조가 파괴되면서 여성노동운동 활동가들은 거리로 쫓겨났으며, 혹은 결혼으로 노동현장을 떠나면서 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은 80년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여성지식인들이 중심이 된 진보적 여성운동의 모색은 1983년 여성평우회가 창립하면서 여성운동의 주체를 근로 여성, 농촌여성, 도시빈민여성, 도시주부로 상정하였고 여성운동은 전 여성의 인간화운동이고 우리가 속한 사회의 비인간적 요소를 타파하려는 총체적 운동이 되어야 하며, 통일을 향한 민주 의지를 토대로 삼고 여성으로서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해 전개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곧 와해 되었고 그 이후 여성운동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여성평우회 운동의 반성속에서 과학적 여성해방 이념의 정립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민족적 여성운동은 지식인 여성들의 생존권지원 운동이 아닌 민족여성운동으로 정립되어야 할 가능성과 필연성이 객관적으로 대두되고 있었다.



1986년 후반기 여성운동단체들은 기층여성의 생존권 보장운동을 지속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생존권 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권인숙 성고문사건 이후에는 성고문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부패한 독재권력과 독점자본에 대한 싸움을 벌려나갔다. 87년 5월말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고 전체 사회운동의 힘이 반독재 연합전선을 형성함에 따라 여성운동단체들의 활동의 구심도 전면적인 반독재 투쟁으로 모아 졌다. 여성들의 민주화투쟁은 시청료거부운동, 최루탄추방운동을 중심으로 87년 6월 투쟁의 기폭제가 되기에 이르렀다.

87년 민주화 대투쟁에 참여하면서 여성운동의 정치적 투쟁력이 급격히 고양되었으며 이를 여성대중의 조직화와 정치세력화로 연결시켜야 할 필요성이 여성운동의 당면과제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요구를 기반으로 87년 이후 88년 상반기에 이르기 까지 서울과 지방에서 여성운동단체들이 속속 결성되었다.

한국여성운동은 대남성투쟁이나 여권확장운동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모순구조를 해결하려는 운동, 즉 변혁운동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 명확하게 지적이 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운동의 과제도 전체 변혁운동의 과제와 동일한 자주, 민주, 통일의 실현이라는 일반과제와 여성의 생활상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고 여성대중을 변혁주체로 형성시킨다는 특수과제가 설정되었다. 80년대 후반 이러한 여성운동의 흐름을 단절된 전통의 복원이라고 보는 것은 운동의 오랜 단절과 서구여성해방이념의 영향으로 한국여성해방을 위한 올바른 여성운동의 이념이나 이론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거듭되어 왔던 혼란에서 벗어나 바른 궤도에 정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민중여성운동의 여성해방이념

80년대 후반이후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여성운동은 민중여성이 주체가 되어 여성을 억압하는 한국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운동이라는 의미에서 민중여성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여성해방이념의 핵심적 내용은 여성문제의 본질과 그 해결방법에 관한 것이다. 자본주의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여성운동은 성차별이 무엇에서 기인하며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라는 여성해방이념에 따라 운동의 방향, 내용이 달라졌다. 여성해방이념은 여성운동의 나침반으로써의 중요성을 갖기 때문에 올바른 이념을 정립한다는 것은 여성해방의 관건이 된다.

한국사회의 여성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보이는 문제, 즉 사회적 노동에서의 배제와 가사노동의 전담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 노동에서의 차별과 착취의 문제, 그로 인해 남성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종속의 문제 등 외에 다음과 같은 특수성이 덧붙여지고 있다.

첫째, 근대적 법적평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전근대적 가족법으로 여성의 법적 권리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

둘째, 여성노동에 대한 차별과 착취의 정도가 극심하다. 여성노동자의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을 밀반침으로 고도경제성장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여성농민, 도시빈민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셋째, 봉건적인 성차별 의식이 강하게 남아있다

넷째, 매춘여성문제가 심각하다. 자본주의의 성의 상품화와 제국주의의 성침탈이 겹치지면서 매춘여성의 수가 생산직여성노동자의 수와 거의 맞먹을 정도이다.

이러한 한국여성문제의 특수성은 한국 사회 모순구조의 특수성의 반영이다. 한국사회에서 여성문제



는 식민지사회이면서 기형적인 자본주의 즉 반자본주의 사회인 한국사회의 성격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운동도 반외세 자주화 반과소 민주화 운동의 성격을 갖는다. 이때 여성운동의 대상은 자연히 외세와 국내 독재권력과 독점자본이 되며 여성운동의 주체는 광범위한 민주세력으로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도시소시민 등 계급계층 여성들이 된다. 여성운동은 계급계층 내에서 구축된 여성부문과 그 공고한 연합을 일컫는 것이다. 물론 여성노동자운동과 여성농민운동이 여성운동의 핵심역량으로 여성운동을 이끌고 청년 여대생이 그의 교량자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자주적 여학생운동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 정립하자.

◀여학생운동의 뿌리, 항일여성전사의 혁명전통에서 찾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여성운동사는 일제의 식민지와 함께 시작하면서 민족의 과제, 계급의 과제, 여성의 특수과제를 통일시켜가면서 시작되게 됩니다. 1905년 외교권 박탈당시 대부분 친일활동을 해 왔던 여성단체간부들에 반발하면서 구국운동에 대한 요구를 가지고 '진명부인회'를 만들고 국채보상운동을 진행하게 되는데 국채보상운동의 취지문을 보면

"국채를 갚고 보면 국권의 회복 뿐 아니라 우리 여자 힘을 세상에 전파하여 남녀 동등권을 찾을 것이니..., 우리 여자 동포님네 동성일심하여 때를 잃지 말고 지환 한번 벗게 되면..., "

이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민족의 문제와 여성의 문제를 통일적으로 인식하였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병활동을 지원하는 등 여성의 역할이 막중하였는데 이 속에서 여성대중들은 반외세 반봉건적식이 고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국외에서 건설되었던 조국광복회는 만주에서의 항일 투쟁과 군내진공 작전으로 조선 민족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조국광복회의 하부 조직으로서 구내에서 조직되었던 조선민족 해방동맹에서는 그 내부에 정치부, 출판부, 경제부, 청년부, 부녀부, 등을 두고 그 외곽에 반일 청년 동맹, 반일 부녀 그룹 등 각종 조직과 유사시 무장봉기-자위 활동을 할 생산 유격대를 두었습니다. 여성들은 유격대 활동에 직접 참가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기도 하고 대중에 대한 선전사업 등을 하였고 후방의 여성들은 물자조달, 지원등 여러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시기 항일무장여성전사들이 더욱 위대한 것은 여성들의 처지가 열악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었던 봉건사회였음에도 집안에서 한숨만 쉬는 수동적인 여성이 아니라 바지를 입고 목숨을 내대며 민족해방과 여성해방을 위해 나설 수 있었던 그들의 애국주의와 숭고한 혁명의 의지 때문입니다.

주위의 비난과 무시를 무릅쓰고 조국해방의 일념아래 남자들은 힘들다는 무장투쟁에 지원하고 여성부대를 만들며 훌륭하게 혁명과업을 완수했던 여성전사들 등 자신의安危를 돌보지 않고 활동했던 수많은 여성전사들이 있었기에 여성들 또한 당당한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한반도 반쪽 이북에서는 여성억압의 물적토대 타파를 사회법제도로 보장하는 측면과 문제의 주체인 여성들의 의식계몽을 통한 발전을 꾀하는 한 축으로 전개하였으며 반제 반봉건 여성해방의 실현을 위해서 사회변혁의 과제를 함께 실현함과 동시에 여성해방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여성들을 의조직화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운동은 결코 사회변혁과 떨어질 수 없다는 것과 반제반봉건여성해방이념이 자리잡아나가며 여성운동 발전을 담보 받은 것처럼 올바른 사상에 근거한 여성해방이념과 조직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여성대중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 이 세가지의 교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 왜 자주적 여학생회가 민족자주정신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집단, 조직체인가.

①역사의 주인, 사회의 주인으로 서고자 하는 자주적인 본성을 집단의 힘으로 구현하기 위한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자주적 여학생회는 사람중심, 학우중심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또한 민중중심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학생회 체계입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여학우 중심, 여성민중중심의 사상이 됩니다.

모순이 있는 곳에는 그 모순을 해결하려는 인간의 의지와 투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즉 사람은 자신의 자주성이 무참히 유린당한다는 자각을 하면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투쟁을 전개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사람의 자주성은 가장 옹호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에 그 사람들의 자주적인 요구와 움직임 속에 늘상 대중조직이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자주성은 어떻게 유린당하고 있습니까?

남한은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서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계급모순은 피착취계급의 자주성을 유린하는 것이며 민족모순은 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 전원인 민족성원 모두의 자주성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한사회에서는 계급투쟁과 민족투쟁을 동시에 벌여나아가야 합니다. 게다가 착취하는 계급과 정권은 민중을 중심에 두기 보다 제국주의자들의 구미에 아부굴종하기 때문에 전체민중은 이중삼중의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모순에는 여성이고 남성이고 예외일 수 없으나 여성은 성이라는 또하나의 억압을 위한 도구를 가지게 됩니다. 즉 이러한 성차별로 인한 억압의 당사자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적용이되기는 하지만 주요 피해자는 여성이며 가장 억압받는 계급 계층이 더욱 투쟁의 요구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더욱 주도에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역사의 주인 사회의 주인으로 서고자하는 본성이 있으나 우리사회에서 여성은 그러한 요구를 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운명을 주체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절박함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집단주의에 기초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즉 모순이 있는 곳에 자주성 실현을 위한 노력이 있고 그의 실현은 집단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는 두레 품앗이 계등에서 볼 수 있듯이 예전부터 집단주의가 잘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군부독재 타도투쟁을 통해 집단주의 사상이 대중적인 사상으로 자리잡혔습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미제와 독재정권이 유포시킨 개인주의 사상과 잡사상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어 왔습니다. "나는 나 내가 좋은 것은 내 마음대로.."이러한 신세대 논쟁은 개성과 다양성이라는 논리에 의해 사상의 중심을 흔들어놓게 됩니다.

함께 어우러지는 대동의 문화보다는 락으로 대변되는 자신의 욕구를 개인적으로 잡다하게 발산하는 식으로 제국주의의 찌꺼기 문화가 유포되고 이것이 대학내로 들어오면서 개인의 요구에 의해 집단



을 형성하지만 자신들이 함께 만든 집단을 존중하고 중심으로 사고하기 보다는 자신의 요구에 맞지 않으면 집단을 떠나고 다시 끼리끼리 모이는 이합집산의 모임이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은 살아오는 과정에서 아니 길들여져 오는 과정에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이고 집단적인 본성을 무시당해왔습니다. 정치에서 여성의 몫은 집안일이라며 사회참여도를 막아나서면서 여성의 정치의식을 낮추어 버렸고 경제에서 여성을 고학력 실업자의 문제가 여성을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만 고용하며(임금은 남성의 60%, 정리해고는 일순위) 차별을 만들었으며 문화에서 성상품화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면서 가치판단의 기준이 외모가 중심이 되고 그를 위해 최첨단유행을 따르기 위한 소비와 향락문화등을 쫓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제국주의의 식민의 근거가 가장 극렬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기지촌여성이나 강제 중군 위안부의 문제입니다.

여성의 성을 사고 파는 상품으로 인식하는데 무리없게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군대의 자기고조라는 명목으로 주한미군의 성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민족의 여성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담요부대라 이름불리워졌던 일본의 식민지 시대 유물인 '일본군 강제 중군 위안부'를 그대로 복원시킨 것에 다름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전쟁책동 속에서 한민족의 여성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미제국주의의 더러운 음모에 말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식민지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자주성을 억압당하고 있는 우리 여성들은 집단을 지향하는 본성을 발현시켜내는 자주적 여학생회에서 함께 투쟁으로 자신의 권리를 획득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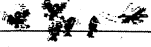
②자주적 대중조직은 우리 사회 성격과 임무에서 나오는 우리 시대의 가장 과학적이고 위력적인 학생회체계가기 때문입니다.

대중조직은 대중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에 우선으로 착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자주조직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우선적으로 착목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식민지 한국사회에서는 학우 자신 스스로의 자주성을 실현시킬 권리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와 요구가 일차적으로 민족해방의 과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요구, 운동의 조건과 토대, 주체적 역량의 축성정도에 따라 학우대중의 이해와 요구가 그 해당 소요시기에 성장 확대 강화될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주조직으로서의 발전은 대중조직이 확대강화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시기 여학생운동의 요구되어지는 과제로 여학운의 대중화가 반미 반전의 요구에 부흥해서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투쟁의 의지로 모아내어 확대강화될 때 위력적인 체계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라는 집단 속에 자신을 소속시키고자 하는 요구는 현실 참여의식의 확대를 대변하는 것이고 사회참여로 나아가기 위해 여학우의 처지와 조건의 이해는 개별적으로 풀어질 수 없는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집단화하고 사회화하는데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한 개인의 힘으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하나로 모아낼 때만이 투쟁의 방향과 방도가 보이는 것이고 집단적인 힘으로 전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 방도

- 자주적 여학생운동가 결의대회, 전진대회, 교양대회



- 전체교양학교자리에서 자주적 여학생운동 교양
- 자주적 여성전사 영웅대회
- 자주여성, 민주남성 대회
- 항일 여성전사의 삶을 따라 배우자

5. 조직노선

●여학생운동의 토대 여학생회를 건설 강화하고 여학생운동 대중화의 새로운 국면을 열자.

◀기층 여학생회 강화를 위해

변혁정세가 발전함에 따라 변혁의 자주성과 조직적 결속은 변혁운동에 대한 더 높은 요구를 지니게 됩니다. 이것이 운동의 대중화에 대한 요구입니다.

즉 여성민중의 변혁적 요구가 미국의 경제침탈속에서 여성의 생존권 위협을 경험하면서 생존권의 요구에서 반미 투쟁의 요구로 이어지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여성민중과 여학우 대중의 의조직화 된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것은 운동을 더욱 광범위하게 조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사회 여성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할 여대생은 지금시기 예비 여성실업자로 있으면서 자신의 투쟁력을 묶을 조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학생회가 근원적으로 여학우의 자주적 대중조직으로 자기 위상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우리 일꾼은 지금 몇 명의 여학우를 만나고 있는가 생각해 봅시다. 투쟁하고자 하는 여학우에게 자기 조직을 주고 투쟁하고자 하는 열정을 표현해 내지 못하는 여학우들에게는 여대생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본성을 일깨워 주면서 만나야 할 것입니다.

즉 학우대중 하나를 만나도 여학우를 더 만나고 여학우의 목소리고 있는 여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층여학생회 조직을 건설하기 위해 조직건설의 원칙을 알자

여학우 대중을 광범위하게 묶을 수 있는 방법은 구체적인 자기대중을 의, 조직화하는 것과 더불어 무작위 대중에 대한 대규모적인 선전 의, 조직화 방도가 있습니다. 그중 후자에 대한 단위의 실천과제는 일상적으로 제출이 되나 전자, 즉 자기 대중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서부터 실현과제를 도출하는 데는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층여학생회가 건설되어 있지 않은 단위가 많으면서 자기 대중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따라서 놓치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대에서 각 과 1학년 여대표자를 건설하는 사업에 3월 한달을 총매진하면서 구체적인 기층을 건설하는 과정의 모범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기 대중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그리고 여학생운동에 대한 자긍심만 있다면 원칙을 놓치지 않고도 여학생회의 기층을 건설 강화 할 수 있습니다.



투쟁을 통해서 자기 조직에 대한 필요성과 그 조직에 대한 자긍심을 내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칙에 대한 자기내용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여학생회 건설에서 제기하고 있는 잘못된 관점을 명확히 잡아주자

감정을 앞세우기 보다 자기 내용을 확보하고 정치사상사업을 앞세우면서 동지의 마음을 사자.

★굳이 여학생회조직을 건설하려는 이유가 있느냐라는 견해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 3가지

- 1>전체변혁운동의 한 부문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을 인정하지 않는 관점
- 2>“여성운동을 여성문제를 제기하고 교양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는 관점
- 3>여성운동의 독자성이나 독자적인 조직건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학원에서는 독자적인 대중조직일 필요가 없다는 견해

여학생회를 건설하려는 단위나 여학생회나 부가 있는데 매년 일꾼 재생산에서 난관을 겪고 있는 조직적 현실에서 반영되는 여학생회조직건설에 대한 논쟁을 우리 여학일꾼이 먼저 알고 명확하게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제기의 배경은 85-87년 총여학생회가 총여학생회장과 집행부 몇 명 정도의 사람들로 조직되면서 조직적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방대하게 사업을 하기 보다는 논의중심의 사업작품과 폐쇄적이고 씨클주의적인 활동이 중심이었고 기껏해야 여성문제에 대한 선전전이나 학습단위를 꾸려내는 정도의 활동으로 일관될 때 제기되어왔습니다.

지금이라고 상황적인 여건은 달라진 것이 없으나 그러한 한계를 투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단위에서는 매시기 제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다른이에게 비추어진 여학생회는 “그 정도의 활동력이라면 굳이 여학생회일 필요가 있느냐?” “여성부로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하지 못하는 여학생회 간부들은 스스로 지쳐버리거나, 타 공간 성원들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학생회 일꾼들 또한 그것에 대해 명확한 관점을 제기해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전체변혁운동의 한 부문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을 인정하지 않는 관점

이 견해는 모든 운동을 중국적으로 계급해방운동이어야 한다는 것을 제기 하면서 “여성운동이 독자적인 내용을 가지고 전개되는 운동”임을 부정하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계급, 계층, 민족운동이 상호 결합되어 진행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중국적인 목표만을 강조한 나머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계급, 계층의 처지에 따라 전개되어야할 구체적인 운동을 이해하지 못하며 전략적 구호의 제기와 투쟁만이 목표를 상실하지 않고 가장 빨리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관점이 기계적으로 조직건설의 문제로 적용되어지면서 “여성운동 또한 중국적으로 계급해방운동이므로 여성의 독자적 투쟁의 내용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독자적인 조직도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둘째, “여성운동을 여성문제를 제기하고 교양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는 관점

이 관점은 우선 여성문제에 대한 협소한 시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즉 본질적인 여성문제를 여성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억압과 구조적인 문제로 이해하지 않고 억압, 착취를 위해 유포하는 이데올로



기(성차별의식)의 문제정도로 인식하는 것이며 따라서 의식의 개혁이나 변화를 위한 교양, 계몽 정도의 활동이 여성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활동이라면 한 부서나 소모임의 활동으로도 충분히 담보해 낼 수 있는 활동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운동은 분명히 의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러한 의식을 유포, 조장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며 이러한 구조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여성스스로의 자주적인 조직건설로써 투쟁해야 합니다.

셋째, 여성운동의 독자성이나 독자적인 조직건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학원에서는 독자적인 대중조직일 필요가 없다는 견해

이것은 학원에서 제기되는 여성의 특수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독자적 조직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와 총학생회, 단대, 과학생회에서 충분히 반영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두가지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둘째를 설명하면서 그리고 총노선 전반에서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후장에 대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학생회가 여학생운동에 대한 일관된 정책을 생산해 내고 집행할 수 있는 거의 여부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총학생회 골간체계를 통해 집행한다는 의미는 골간체계에서 여학생운동에 대한 투쟁을 일상적으로 사고, 계획, 집행해야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문제가 완전해 해결되지 않는 학원에서는 여학우대중에 대한 의식화, 조직화의 방식과 내용을 계속 독자적으로 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러한 사안을 모든 골간 조직에서 일상적으로 논의함이 과연 운동의 진전을 위해 효과적인 것인가? 라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왜냐하면 과나 단대에서의 중심적인 과제는 과, 단대라는 틀거리로 부터 오는 이해일 수밖에 없으며 같은 과, 단대원 일지라도 여학우에게는 좀더 다른 문제가 더 절실한 이해로 나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근원적으로 여대생은 청년학도로서의 자기 규정과 함께 여성으로서의 자기 규정을 가진다는 이해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또한 남학생들도 물론 여학생운동에 대한 지지, 성원을 보내주어야 하겠지만, 이들이 여학생운동의 주체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을 무시한 채 하나의 조직속에서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 소화해 낸다는 것은 서로 이해의 정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며 결국은 소화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효과적이지도 못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전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발전적인 조직체제로 여학생회가 건설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학생 운동가는 모두가 핵심일뿐다워야 합니다.

선거시기가 되면 각 단위 여학생회는 한가지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간부일꾼 발굴의 문제입니다. 결국 여학생운동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못했던 골간의 간부가 인선이 되면서 여학생운동의 계승과 혁신의 한계를 적잖이 가지게 됩니다.

실제 지금도 전체 운동대오내 여학생운동을 풀어나가고 있는 일꾼을 꼽으면 지금의 역량으로 어떻게 대중화와 더불어 혁명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학생운동은 변혁의 과제와 더불어 여성으로서의 과제가 있기에 이중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모든



여학생운동가는 모두가 핵심이라 생각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도핵심의 징표를 나의 것으로

① 투철한 민중중심의 변혁관과

여성민중의 삶을 나의 삶으로 인지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바로 민중중심의 변혁관이었습니다. 민중중심의 변혁관이란 민중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하고, 민중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변혁을 대하는 관점과 입장이며, 민중을 위해 결연히 싸워 나가는 투쟁정신입니다. 사람들은 우선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자각하게 될 때 무비의 헌신성과 용감성, 영웅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즉 여성민중이 세상의 주인으로 되게하는데 나서는 과제를 나의 과제로 자각하는데 변혁관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민중을 위해 살며, 투쟁하는 것보다 값진 삶은 없습니다. 민중중심의 변혁관은 변혁이란 민중의 이익, 민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라는 올바른 인식을 줌으로써 영광스러운 삶의 가치로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민중을 위한 변혁 투쟁에 서슴없이 바쳐갈 수 있어야 합니다.

<조직에 대한 견해와 관점을 바로잡자!>

조직을 단순히 단결의 모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 생명의 모체로 보면서 조직생활에 자발적으로 참가하면서 조직이 준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조직의 규율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조직의 비밀을 목숨으로 엄수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학생운동가에게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대중관을 바로잡자!>

민중을 변혁의 주인으로 보고 민중에게 봉사하며 민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민중의 힘에 의거하여 변혁을 해 나가는 관점과 입장입니다.

<도덕관을 바로 세우자!>

변혁적 양심은 변혁운동가들에게 있어서 자기 행동의 거울입니다. 민중의 이익에 맞게 티없이 행동했을 때에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것이고, 민중의 이익에 어긋나게 행동했을 때에는 죄책감을 갖고 자기 반성을 합니다. 이같은 행동이 바로 변혁운동가의 도덕입니다.

<인생관을 바꾸자!>

② 높은 정치실무적 자질, 그리고

<정세 판단력을 길러야 합니다.>

정세를 올바르게 파악하려면 과학적인 판단력을 가져야 합니다.

<책략력을 가지자!>

투쟁전술을 잘 수립하려면 우선 적중한 구호를 제시한 행동의 지침인 구호를 바로 제시해야 대중 투쟁의 목적 지향성을 보장할 수 있고, 대중의 변혁적인 열의와 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동할 수 있습니다.

<선전선동력을 배가하자!>

<조직적 수완력을 가지자!>

<지휘력을 가지자!>



③ 훌륭한 민중적 품성을 갖춘 일꾼을 뜻합니다.

솔직, 겸손, 소박, 용감, 성실해 집시다.

◀ 여학생운동핵심을 발굴 육성하자.

여학생운동가 재생산을 위해 간부단련 사업에 대한 고민은 예전부터 해왔고 지금 우리의 운동수준을 봤을 때 무한한 발전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운동을 풀어가는데 한시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 바로 주체를 계속생산 계속 발굴하는 것입니다. 먼저 투쟁속에서 일꾼을 찾고 대중투쟁속에서 단련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학습, 조직생활, 실천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하며 이것은 즉 교육, 조직생활, 변혁실천을 결합시켜야 합니다.

① 사상학습을 실속있게 해야 합니다.

② 자주민중통일 실천과 결합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여학생운동이 전체운동에 강화복무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학습과 사색을 통해 운동이론을 창출함과 동시에 그것이 실천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③ 특히나 여학단위는 전투적인 조직생활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투적인 조직생활은 핵심을 키워내는 종합적인 훈련장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학생회 단위에서 무척이나 실행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조직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조직생활을 통하여 교양과 지도를 받으며, 비판과 자기비판 속에서 조직성을 키워가며 운동가로 자라기 보다 실무를 분공하는 정도로만 하는 편의적인 경향이 아주 짙습니다. 이것은 운동가의 활동력을 떨어뜨리고 사상의지적 결합과 동지적 결합을 약화시키는 결과만 낳을 뿐입니다.

조직생활은 구성원들을 변혁운동가로 키우는 과정인 만큼 모든 구성원들에게 조직적 임무를 부여하고, 그것을 수행하도록 상세히 도와 주고, 방향을 바로 잡아주고 결합을 고쳐 나가도록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조직의 품은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의 품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조직생활에서 비판은 핵심을 키우는 위력한 무기입니다.

◀ 일꾼들은 혁명화된 여학생운동가가 되자.

① 가는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99년은 그 어느해 보다도 간고하고 복잡한 운동을 요구합니다.

우리 여학생운동의 길에 언제 평탄했던 적이 있었나마는 모든 애국민중세력에 대한 탄압은 99년 미제국주의와 사대세력의 몰락으로 그 강도를 더해가고 반면 애국민중들의 투쟁은 자주, 민주, 통일의 위업을 눈앞에 둔 것처럼 거세차게 몰아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민중들 또한 반미자주화 투쟁에 몸소 투쟁으로 일어나고 미국의 전쟁책동 분쇄, 한총련 이적규정철폐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으로 조금씩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이 위기에 있을 때 언제나 제 몸같이 일떠서서 운명개척의 당당한 주인이 되었던 한민족의 여성들처럼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허물을 벗고 위용찬 투쟁의 길을 택하고 있는 지금의 2천만 여성민중과 함께 한다면 승리합니다. 여성해방의 과제가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웃으며 갈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승리는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에 대한 낙관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여성해방 그날까지 언제나 웃으며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②조국과 민중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한다.'

이성을 잃고 발광하는 미제국주의와 민중의 생존권을 담보로 자신의 사대매국정권을 연명하려는 세력에 맞서서 우리 민중들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세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벌써 수십, 수백의 노동자, 농민들이 구속 수배되고 있는 상황이며 연이은 파업으로 대격돌은 이제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는 자주, 민주,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하고 있는 담보이며 이러한 전 계층 계급의 민중의 흐름에 청년학생으로써, 특히나 청년여성학생으로써의 자기 역할과 임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즉 지금은 조국과 민중 앞에 자신의 사생활도 바치고 모든 것을 민중을 위해 복무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냐, 예속이냐의 갈림길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③대중운동의 3대 기풍을 세우자.

· 결사관철의 정신

철저하게 조직의 결정과 대중의 힘에 근거합니다. 대중만큼 지혜로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학단위 일꾼들이 가장 쉽게 놓치는 것이 바로 대중의 힘을 믿지 못하고 대중의 수준을 스스로 잣대질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투쟁이나 사업을 조직하는데 대중을 중심에 두고 있었는지 아니면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대중속에서 지혜를 찾는다면 당장 대중은 우리 일꾼들을 믿고 따라 올 것입니다.

· 자력갱생의 정신

다른 사람의 창조물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배끼려 하지 말고 자신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려갑니다. 우리 여학일꾼들은 모두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했듯이 모든 일꾼들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조국통일과 여성해방은 바로 99년 대격돌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 낙천적 생활기풍

전여대협이 이제 5기를 맞으면서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승리에 대한 신념이 조금씩 확고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변혁이론을 터득하고 여성해방의 단계를 변혁적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다가가려는 노력등, 자신의 처지와 조건만을 내세우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운동의 수준이 아직은 이정도 이지만 승리는 언젠가 확정적이기에 우리는 한시도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민중의 삶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니까요

④변혁적 자질을 갖춘 혁명적 여학생운동가가 되자

간부라면 사상가인 동시에 이론가, 책략가, 조직가, 실천가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처한 현실에 대해 정확히 알고 거기에서 정세판단을 내어오고 삶의 개척방안이 나와야 함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조국이 깊어지고 있는 굴레는 여성에게 가장 질곡의 삶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들 여성이 사회 변혁의 주체로 나서는데 예는 수많은 고개들이 있습니다. 즉 정치, 경제, 군사, 사상, 문화 전반의 영역에서 여성의 자주성은 유린되고 착취당하고 있고 뿌리깊은 성차별의식이 사회화 과정에서 왜곡된 여성상에 길들여지고 강요당해 사회에서 괴리되며 정치의식이 결박당해왔습니다.

이러한 여성의 처지와 여대생이라는 계층적 신분조건에서 정세를 분석하여 여성이 자신의 생존권적 요구를 집단적으로 풀어가도록 조직해야 합니다. 다시말해 당연한 변혁의 과제는 여성의 문제를 푸는데 있어 그 뿌리가 되기 때문에 함께 반정부 투쟁 반제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과학적인 해명으로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⑤자기 영역에 관한 전문정치일꾼이 되자.

여학생운동이 변혁운동을 강화하고 풍부화시켜내도록 자기영역, 즉 전문성에 기반한 대중 의, 조직화를 제대로 이루어낼려면 여학생운동에 대한 막연한 자부심을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학생운동의 조직사상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으로 과학적인 전망을 세워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성이라는 자신의 처지에따라서 근거하는 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운동으로 되기 위한 기본전제조건입니다. 여학우들을 자신의 처지에서 사회구조적인 모순에 눈을 뜨게 하여 자기삶의 주인공체로, 사회변혁의 주체로 나서게 하기 위해서는 여학우들이 살아온 경로를 제대로 알고 투쟁의 방향을 제대로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여학생운동의 총적 방향은 여학우들을 자주적 주인공체로 일떠세우고 봉건사상타파와 자주, 민주, 통일의 전면화로 민족자주정권수립과 통일조국 건설을 이룩하고 인간해방을 안아오는 것입니다.

⑥여성자주화의 입장을 자기 삶에서부터 구현해 들어가는 자세를 갖자.

모든 사상과 이론은 생활상의 구체적인 보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며 우리의 사상은 생활의 작은 말이나 태도로써 학우들에게 다가서고 그것은 어떤 논리적인 도구보다 그들을 교양, 설복시키는 강위력한 무기가 됩니다. 자주적인 여성상을 간부일꾼 스스로가 구현할 때 대중들은 한없이 믿고 따를 것입니다.

⑦자신의 준비정도를 정확하게 꿰뚫어 조급함을 버리면서 자신이 개척자가 되는 여학생운동가가 되자.

이제 5기를 맞은 여학생운동을 두고 수십년의 투쟁의 성과를 가지고 있는 학생운동과 현상적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비교하려 들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고 눈 앞의 성과가 없음을 한탄하고 있다면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하고 내가 조직한다는 결의로 해왔던 지난 3,4년의 여학일꾼선배전사들을 생각하면서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방도

- 일꾼 재생산과 단련을 위해 '새내기 하루 간부'

6. 대중운동노선

●여학단부가 대중속으로 파고 들어가 대중운동 정형을 창출하고 여학생회 자기조직을 강화하자

◀대중운동의 원칙, '대중 의식화, 조직화, 대중투쟁'의 원칙을 알고 지키도록 하자.

우리 여학단위 일꾼들이 대동제에서나 과 모교지 여성문화제등의 대중사업이나 투쟁을 전개하는데 있어서에서 가끔 형식만 존재하고 내용 또한 형식적으로 하면서 치뤄내기 식으로, 생색내기 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대중사업이나 투쟁은 대중의식화와 조직화에 근거한 총화지점이며, 실천의 과정을 통해 다시금 의조직화의 발전으로 귀결되는 원칙을 저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대중사업 또한 투쟁으로 여기고 학우대중의 애국적 지향을 높이면서 학생회의 조직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창조적으로 제기되었던 사업임에도 핵심적 문제인식은 사라진 채 외피만 덩그러니 남도록 만든 일꾼들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학생회 단위의 대중운동 흐름을 어떻게 상승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창출된 여러 가지 사업방식이 일꾼들이 부족하고 역량이 안된다는 이유로 껍데기만 그대로 답습되면서 변화된 상황과 여학우들의 의식흐름에 맞게 구현되지 못하고 유지 반복하는데 급급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대중사업을 대중투쟁과 분리해서 사고하거나 대중사업과 투쟁을 대중의, 조직화의 총화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는데서 비롯됩니다. 그러다 보니 구체적 자기 대중에 근거해 연구하고 사색하여 창발적으로 구현하기 보다 대중사업에서는 형식을 답습하는 것으로 대중투쟁에서 있어서는 확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대중운동 구현의 원칙으로 되는 '대중의식화, 조직화, 대중투쟁'의 원칙에 충실했을대 대중운동다운 대중운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의식화, 조직화에 근거한 대중투쟁으로

대중투쟁은 의식화와 조직화의 성과를 총화하면서 정치적 성과를 거두는 실천활동입니다. 그런데 응당한 대중의식화와 조직화가 진행되지 못한다면 대중투쟁의 성과는 크게 결속될 수 없습니다.

대중의식화의 학우들의 의식화 흐름에 맞게끔 단계별로 창출해내고 그러한 작업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한해 투쟁의 과정에서 검증되었듯이 매시기 제출되는 대중투쟁에서 여학생운동과 변혁의 과제를 결부시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다면 그 때마다 우리여학단위의 전문적인 정치적 목표를 내어 오고 그를 대중들과 무리없이 공감하고 참여를 이끌어내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실천투쟁 또한 마찬가지로 단순히 주체의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투쟁의 본질과 당면 사안에 있어서 적과 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갈라내면서 대중의식을 한 단계 상승시켜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중속으로

대중의 힘과 지혜를 믿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다했습니다. 99년 여학생운동이 외길을 가지 않



으려면 반드시 대중속으로의 기치를 다시한번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대중속으로의 기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서 밝힌 대중운동과 대중투쟁의 원칙을 대중을 중심으로 두고 사고하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여학단위 핵심일꾼들이 알고 있는 투쟁의 원칙을 반드시 대중속에서 풀고 대중속에서 검증받아야 할 것입니다.

작게는 나는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여학우를 만났나 점검하면서 살아봅시다.

◀3대 소조운동의 원칙적이고 뽐때있는 실현을 위한 여학생회의 방도

①제기배경

· 일꾼의 혁명화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대중노선을 구현하여, 운동대중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방도입니다.

· 모범을 창출하고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일꾼들의 사업방법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대중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도입니다.

②뽐때있는 실현을 위한 방도

- 주체의 모범을 집단의 모범으로
- 사상혁신에서 사업방법의 혁신으로
- 사업방법의 일대전환을 이룹시다.

여학단위는 체계의 정형이 없는 한계로 단위의 실정에 맞는 형식을 고민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안으로 소모임건설을 제기합니다.

◀소모임건설에 대하여

<주체발굴과 양성을 통해 주체의 책임성을 드높이자>

언제 어디서나 변함이 없는 원칙입니다. 한두 사람이 모든걸 떠맡는다는 식이 아니라 주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전을 담보받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일꾼들을 강하게 키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학습을 했다면 그것을 통해 조직화하고 구체적인 실천과 결부시켜봅시다.>

· 사전에 소모임이 있음을 대자보로 공개하면서 대중적으로 진행하고 모임의 시작부터 성원들은 책임성을 가지고 모임하나를 하더라도 내실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소모임 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사전에 준비하고 임할 수 있는 내용과 분공을 내려줍니다.

· 이후에 실천할 수 있는 방도를 반드시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일단 논의 토론된 내용을 자보로 공개하는 것은 기본이고 선전전이나 집회의 공간에서 말로 이야기 했던 것은 실천으로 검증된다는 것을 각인시켜줍니다. 실천투쟁만큼 훌륭한 학교는 없습니다.

· 여성문제 퀴즈대회를 일차적으로 소모임 단위에서 열고 이것을 과로 확대하여 열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 상송 발전시켜서 수요시위나 금요시위로 조직화합니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소모임을 건설하자>

총여학생회나 여학생회 중앙간부의 자기 대중을 가지는 방도는 아직 전일적인 체계로 제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총여학생회 중앙만 있고 기층이 전혀 없는 단위나 단대 여학생회는 있으나 과여학생회, 부가 있는 단위 또는 총여학생회, 단대여학생회, 과여학생회까지 일반적인 조직의 정형을



가지고 있는 단위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우리 여학단위 일꾼들이 광범위한 자기 대중을 가질 수 있는 방도로 여학생회 발생과 더불어 소모임이 제기되어져 왔었으며 지금에 와서 그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에 소모임이 다시 제기될 때에는 모임의 성격과 더불어 운영방식의 혁신을 내어와서 여학생운동의 조직적 성과로 남기고 여학생운동을 대중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의 소모임이 제기됩니다.

☞제기배경은

- 과학적인 의, 조직화 공정히 될 수 있다.
- 간부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 소모임의 활동을 장기화 할 수 있다.

☞조직화 방식

- 핵심거점(과나 동아리)을 중심으로 소규모단위 (2-3명 혹은 3-4명)로 구성한다.

☞운영내용

①수요선전을 위한 할머니 지킴이단

지역별로 '중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연계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몸이 이제는 많이 쇠약해 지시고 몇십년을 홀로 지내셨기 때문에 많이 외로워 하십니다. 대경여대협을 비롯한 다른 지역여대협에서 각 대학별로 할머니 한분씩 책임지기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활동력을 더욱 활발적으로 하고 기존 활동 또한 계승해 봅시다.

수요선전전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선전물 부착, 유인물 배포 등을 진행합니다. 관련 학습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모임입니다.

②금요집회를 위한 자주여성 자주독립단

기지촌 여성의 삶을 학우대중과 함께하며, 주미철투쟁을 금요일을 중심으로 실천투쟁을 진행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주한미군 주둔역사와 범죄, 기지촌 형성과정등을 중심으로 학습하며, 일주일 단위로 선전물이나 유인물, 집회등으로 실천투쟁을 조직화할 수 있는 수위의 소모임입니다.

③새내기 자주교류단

일년의 지속적 흐름을 가지고 자주교류를 준비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주체마련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자주교류단을 모아 그 단위를 중심으로 학우들의 의사개진이나 서신작성, 조국통일에 대한 학습 등을 진행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여성의 역할 여대생의 역할 등을 학습합니다. 새내기를 중심으로 조직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이제 처음으로 여학생 일꾼이 되는 과여학생회장님이나 과여부장님 혹은 새내기 여대표자를 중심으로 꾸려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총련 산하의 어느 학교 학생회에서 자주교류에 대한 의사개진을 했을 때 방북사업에 대한 관심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금강산 관광에서부터 시작된 남과 북의 교류는 자연스럽게 느낄 정도입니다.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반드시 학우들에 의해 보위받으며 대중적으로 성사시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교류는 시작이 반입니다.

④여성노동자와의 연대 실현을 위한 여노학연대 실천단

졸업을 앞둔 4학년이나 직장인이 많은 야간학부를 중심으로 조직화하여 지역별 여성노동자 투쟁하는 노조에 지지, 지원을 조직화합니다. 그리고 예비여성실업자 대열로 들어선 졸업반 학우들을 중심



으로 졸업후 자기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공동의 활동상을 계획하면 됩니다.

⑤여성농민과의 연대 실현을 위한 여농학연대 실천단

민중연대 실현의 전면화를 위한 99년은 예년처럼 여농농활에서의 분반활동 조직화만으로는 실현시킬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정치농활이나 계절별 농활에서도 여학단위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합시다. 더불어 여성농민들의 삶을 알아야 진정한 연대가 실현될 수 있으므로 여성농민운동에 대한 학습 또한 중요하게 진행하는 소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 방도

- 3대 소조운동 방도
- 소모임 건설을 위해 과기참여학우들에게 설문작업과 조직화 작업을 진행하자.

7. 대중투쟁과제

(관점과 자세는 한총련 사업계획서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여학생단위에서 어떤 관점을 견지하고 투쟁해야 하는가 설명하겠습니다.)

●반외세자주화 투쟁

◀반미자주화 투쟁

모든 계기와 조건을 반미자주화 투쟁으로 연결시켜야 하는 이유는 반미자주화는 변혁운동의 총적목표이며 자주민주통일을 이루기 위한 선차적인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미자주화 투쟁은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실현하는데 기본 출로를 열어줄수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의 자주권을 근원적으로 짓밟고 있는 것 또한 미제국주의이며 나아가 사대매국세력을 앞세워 반여성정권으로 군림하면서 여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주민주통일을 이루고 여성해방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한반도 여성 자주권 유린의 본질 미국을 몰아내는 투쟁을 가장 선차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당면해서 북침전쟁책동 분쇄투쟁에 모든힘을 집중하며 이 투쟁을 조미 평화협정체결 성사와 주한미군 철수 투쟁으로 상승시켜가야 합니다.

■윤금이씨, 이기순, 허주연씨 그리고 올 들어 신차금, 전진화씨, 이보비 어린이 업기적 살인만행, 한민족의 여성을 유린 강간하는 주한미군 몰아내고

■미국의 국제통화기금을 앞세운 경제침탈을 반대하는 투쟁을 함께 벌여야 합니다.

①일상적인 금요일집회

- 집회 조직화를 일상적으로 점점 총화하면서 합시다.
-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수요선전전과 금요일선전을 진행할 때 매시기 당면 정세를 함께 풀



면서 대중의식화의 유력한 공간으로 만들어갑시다.

- ☞ 여학생회 일상적인 사업공간으로 인식되게 하기 위해 총여학생회 매주 흐름을 학우들과 공유한 다는 목적의식성을 가지고 선전전의 내용을 내실있게 준비합니다.

②기지촌 여성들을 의조직화 할 수 있는 방도

- ☞ 기지촌 주변의 대공업적인 선전의식화 사업
- ☞ 기지촌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진행할 주제를 마련하자.
(다시 일꾼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간부중 연사나 조통일꾼. 정책이 겸임하는 형식)
- ☞ 기지촌 활동에는 반드시 사전교양과 이후 활동총화와 후속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③주한미군 기지 항의 방문투쟁

◀반일투쟁

일본의 군국주의 음모는 지금의 제국주의의 운명과 같이 하면서 마지막으로 군사적 음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내에서 대동아공영권을 획책하려는 찰나에 한때 식민지 수탈과정에서 있었던 여성유린에 죄의식을 느낄 리 만무합니다.

민족의 자주권을 발휘할 수 없는 조국의 현실이 여기에서도 드러납니다. 미-일 신가이드라인을 반대하며 민족의 자존을 지키려 투쟁하고 있는 여성민중들의 투쟁을 청년여학도가 확산시켜내고 반미, 자주화 투쟁과 함께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①수요집회 일상화

- ☞ 자교교류 투쟁을 계속적으로 총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서울지역에서는 반드시 기필코 일상화시켜야 합니다. 연대투쟁의 신뢰문제이기도 합니다.

●반파쇼민주화 투쟁

반파쇼민주화투쟁은 사대매국세력집단에 타격을 줌으로써 미국의 식민지 기반을 허물어 버릴 수 있고 미국의 식민지 통치의 위기 국면을 만들 수 있고, 민족민주운동세력의 강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현 정권하에서 여성민중들은 생존권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또는 국가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주부들의 과소비 때문이라는 논리로 경제과국의 원인으로 몰리기도 했으며 공창제도 입법화를 운운하며 전쟁의 성노리개로 몰리기도 했습니다.

반여성정권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을 통해 미국의 식민구도에 파토를 내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데 주동으로 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창제도 입법화를 반대하며 김대중정권 퇴진투쟁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 ☞ 양심수 전원석방투쟁
(여성양심수-여성양심부들은 양심수에 비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



여름에도 차가운 감옥바닥에서 홀로 지내며 장종양, 하혈, 결핵, 골다공증 등 모성을 위협하는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나 내용은 이후 제출)

◀민중생존권 쟁취투쟁은 현상적으로는 반파쇼민주화 투쟁이지만 본질적으로 반미자주화투쟁입니다.

◀성폭력 규제 학칙제정

서울대 학교측에서 규제학칙제정을 실시하려하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대학에서서 덩달에 제정에 대한 움직임을 만들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의 올바른 관점으로 쟁취해낸 투쟁의 성과이어야만이 그야말로 여대생을 위한 여성을 위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각 대학의 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중의 의식흐름을 만들고 대중들의 힘으로 만들어냅니다.

●조국통일 투쟁(이후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지난 투쟁성과
자주교류

◀일본군 강제 중군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2천년 국제 모의 전범 재판

●여학단위 공동연대투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첫 포문을 힘있게 열자.

◀공동연대 투쟁이란.

현시기 우리운동 앞에 나서는 과제의 하나는 공동투쟁 연대투쟁입니다. 공동투쟁은 동일한 요구조건을 관철하기 위해 같은 계급, 계층이 함께 손잡고 투쟁하는 것을 뜻하고, 연대투쟁은 말그대로 정당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싸우는 어느 계급 계층이 지원투쟁을 벌이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는 6월 민중항쟁때 '호헌 철폐' '독재타도' '민주개헌' '민주정치'를 요구하며 광범위한 애국민중이 일제히 일어난 것에서 그 예를 들 수 있고 연대투쟁은 예컨대 생존권과 노동대중의 기본권을 요구해 싸우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 성원해서 대학생들이 투쟁을 벌이는 것등에서 그 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연대 투쟁을 실현하는데 원칙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에서 여성민중연대도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자.

<투쟁에서 일치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

각 계급계층이 자기의 이익만을 내세운다면 공동행동, 연대투쟁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의 목표를 제기하고 행동의 통일성을 보장할 때만이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상황으로 봤을 때 애국애족의 기치인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 반미자주화와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의 기치를 공동



의 기치로 높이 치켜들고 행동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각계 각층의 애국민주세력이 소의를 버리고 대의를 고수하며 정견과 신앙, 소속과 재산의 차이를 초월해서 공동연대투쟁을 실현하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성민중연대는 여기에 여성해방의 대의를 함께 들수 있을 것입니다.

<애국민주세력이 상호 성실성으로 지지성원하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신의를 버리지 말며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만일 각계각층이 저마다 자기의 세력만이 힘이 있고 자과 세력만이 투쟁의 주도세력이고 자기들이 벌이는 투쟁만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보잘것없는 세력으로 경시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해 나선다면 안되겠지요.

따라서 함께 공동으로 투쟁하기로 했다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호흡을 같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간 여성노동자 단체와 여성농민단체들의 투쟁을 봤을 때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닥 조직적이지도 못한 것 같고 투쟁적이지도 못한 것 같다는 선입견을 가지면서 공동투쟁을 제기할 때 소극적으로 대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시다.

그러한 것은 우리의 적극적인 공동연대투쟁의 실천을 통해 강화 발전되리라 믿고 여성민중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의 실현을 위해 조직된 단체라면 존중하고 함께 투쟁할 것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연대투쟁을 활성화 하기 위한 조직을 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어떤 투쟁을 막론하고 그에 대한 조직적인 지도가 없으면 실패하기 일수입니다. 더구나 주의 주장이 각이하고 사회적 처지가 다른 각계각층을 단합시켜 공동연대투쟁을 벌이는 어려운 작업을 조직적인 지도없이 자연발생적으로 벌인다면 결국 실패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단위에는 전국적, 지역적, 부문별 또는 계층들의 공동연대조직들이 많이 결성되어 있고 그 중 여성단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해서 그 회원단체로 지역별 여성회나 여민회등이 있고 참관단체들도 있습니다. 또한 부산에서는 각 여성관련 단체들을 부산여성단체 연합이라는 공동조직으로 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경여대협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연대투쟁조직들을 더 많이 결성해야 하며 나아가서 이런 조직들을 총괄하여 지도할 수 있는 범국민적인 공동연대투쟁조직을 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실천투쟁은 공동연대투쟁의 실현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도의 하나입니다.>

공동연대투쟁은 적극적인 실천투쟁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실천투쟁을 통해서 공동연대투쟁의 필연성을 절감하게 되고 그 투쟁의 위력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며 또 그에 따라 공동연대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를 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각 계급의 여성들은 미국의 강도적인 침략과 시시각각으로 자행되고 있는 여성인권유린과 살인만행으로 이를 저지하고 자주권을 찾기 위한 작은 투쟁들이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경여대협에서 벌인 여성실업반대 자주권 쟁취를 위한 대구경북지역 여성단체와 함께 한 대구시내 선전전이나 부경여대협에서 벌인 예비 여성실직자를 양산하는 정권을 규탄하기 위한 부산지역 여성들의 투쟁. 그리고 남녀대협의 군산미군기지 땅되찾기 시민모임과 주한미군의 살인만행 규탄투쟁 그리고 전여대협의 주미본과 함께 벌여낸 전여대협 금요일집회 총궐기 등은 다 공동연대투쟁의 교훈입니다.

<노동대중의 투쟁이 주류가 되게 해야 합니다.>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다시 말해 기층민중운동은 대중운동발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층민중운동을 대중운동의 주류가 되게 하여야 합니다.

특히 노동대중은 사회변혁의 근본요구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가장 위력한 계급의 운동으로 계급적 특성으로 인해 미제와 사대매국통치집단에 가장 위력한 타격을 가할 수 있고 어느 계급계층의 운동보다도 지구적이고 완강하고 또 철저합니다.

이 땅의 농민들 또한 한국주민구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파쇼통치집단의 중요한 수탈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나 여성농민이나 다 이들 주력군으로써의 계급적 위치를 가짐과 동시에 여성으로써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사회를 봤을 때 계급모순과 민족모순 그리고 성모순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 이들의 투쟁이 주류가 되게 하여야 합니다.

<청년학생운동, 청년여학생운동을 더 힘있게 벌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학생운동은 기층민중의 투쟁 다시 말해서 노동자 농민운동에 못지 않게 대중운동의 발전과 승리적 전진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년학생들은 낮고 반동적인 것을 증오하고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며 새롭고 긍정적인 것을 지향하여 투쟁합니다. 식민지 한반도의 청년학생들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의 청년학생들보다 높은 민족자주의식과 민주주의적 변혁성을 가지고 있으며 선진사상을 연구하고 수용하는데서 매우 민감하고 진취적입니다.

8.15이후 지금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고 투쟁을 벌여왔고 한국변혁운동 발전에 기여한 바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청년여학생은 기본 청년학생으로써의 자기 임무를 함과 동시에 성모순을 해결하는데 다른 어떤 계급 계층의 여성민중들 보다 더욱 원칙을 고수하고 강고한 투쟁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 농민이라는 계급적 위치가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세력과 사대정권의 수탈의 대상이 되었기에 더욱 강고하게 투쟁을 벌일 수 있는 것 처럼 우리 여성은 성이라는 것을 통하여 제국주의세력의 탄압의 도구로 되면서 반미 반정권 투쟁을 더욱 강고하게 벌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년여학도가 이를 바라보는 시각을 명확히 하고 투쟁을 조직화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의 운동에 각계층 운동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합니다.>

지식인들의 운동, 소상공인이나 수공업자 종교인 등 중간계층도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의 투쟁에 잘 결합 시켜야 합니다.

◁◁구체적 방도

①일상적인 연대가 되어야 한다.

②연대의 틀을 만들자.

노조 방문의 날처럼 여성단체, 여성사업장 방문의 날을 만들자.

자민통이나 대학에서 마련한 유인물이나 포스터, 소자보등을 들고 가서 전달한다.

●지역별 여성단체와 대학 총여학생회간의 자매결연을 맺자

서울지역만 해도 여성단체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총여학생회에서 연대하지 않으면 함께 투쟁할 수 없는 단위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전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책임단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여대협 단위와 대표자 회의를 통해 '1대학 1여성단체조직 차매결연 맺기'를 성사시켜 냅시다.

미-일 신가이드라인 결성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를 올해 처음 방문했다니 너무나 반가워 하시면서 적극 연대할 것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먼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연대 단위를 총여학생회에서 주도적으로 풀어야 할 것입니다.

- 여성사업장 노조와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실천하자.

7. 핵심사업

(시기별로 제출하겠습니다.)

- 전여대협 정기총회
- 5기 전여대협 출범식
- 전여대협 수련회
- 일상적인 금요집회
- 일상적인 수요집회
- 전여대협 새내기 자주교류단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전범 모의 재판을 위한 남북해외 여대생의 학술교류

특별 결의문

● 남과 북, 해외의 대중적 자주교류 투쟁으로 정신대 문제
완전해결을 이루어내고 반민중, 반여성, 반통일정권 김대중 정권
퇴진과 반미 반일 투쟁에 50만 여학우가 선봉에 서자,

분명 그 옛날 일제가 한국을 강점하면서 한국의 여성을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간, 유린하고 살인 행각을 일삼았다. 이것은 전세계가 똑똑히 알고 있고 인정하는 문제이며 전세계의 여론 또한 주시하면서 일본에게 사과배상을 요구 하고 있다.

이는 평생동안 그날의 수치심과 고통을 안고 살아왔던 한민족의 여성들인 일본군 강제 중군 위안부(이하 중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아직도 두 눈 부릅뜨고 살아계시면서 투쟁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할머니들의 요구는 단지 돈 몇 푼의 보상금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민족의 '딸들에게 역사의 오욕을 대물리지 않겠다'는 의지였기에 하루세끼 제대로 챙겨먹을 수 없는 생존의 위협에 있으면서도 투쟁으로 남은 생을 다하겠다는 전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 청년여학우는 이러한 할머니들의 목숨을 건 투쟁에 마냥 바라보고만 있지 않았다.

한민족의 문제이고 식민지 한반도를 살아가는 여성의 문제였기에 할머니들의 피눈물을 함께 나누며 투쟁해왔다.

그러나 지금의 정권은 어떠한가.

지난 방일에서 김대중정권은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사과는 그 무슨 사과나, 과거사는 과거 사일 뿐이고 현재 일본과 한국의 새로운 관계모색을 해야하는 시기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덮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김대중정권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한민족의 7천만 민중중 어느 누구도 일본의 공식적인 사죄 배상을 받은 적이 없으며 눈 감아주자고 한 적이 없다.

민중의 요구를 도외시하고 일방적인 사대외교로 4천만의 자주권을 일방적으로 팔아먹고 있는 정권은 다시 자주외교로 돌아서야 할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정권의 굴욕적인 외교는 호시탐탐 군국주의 부활야욕을 노리고 있는 일본에게 불을 지르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도화선을 만들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의 후방을 지원하겠다는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새로이 체결하고 한반도 전쟁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하나하나 갖추어가고 있으면서 한번 좌절당했던 '대동아공영권', 즉 군국주의 부활을 21세기에 다시 해내겠다고 호언 장담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어민의 어업권을 강탈해가면서 경제권의 잠식도 잊지 않고 있다.

그러더니 이제는 강제중군위안부와 하등 다름없는 공창제도라는 것을 들고 나와 입법화하는 것이 어떠한 식으로 떠보이면서 반민중적이고 반여성적인 정권의 본질을 내어보이고 있다. 이것 역시 철저한 전쟁준비의 하나이다. 최신식 무기와 완벽하게 훈련된 병력이 전쟁을 위한 최선의 준비태 세리면 그와 더불어 그 옛날 일제가 한반도를 침략했을 때 처럼, 군의 사기 고조를 위해 여성을 대(?)는 것 또한 필요하지 않을 까하는 정권의 꼼꼼한(?) 준비인 것이다.

이제 중군위안부의 문제는 위안부 할머니 당신만의 문제도 아니오 그렇다고 여성들만의 문제도 아니오. 단지 4천만의 문제도 아니다, 민족의 공멸을 만들면서 살행이 마냥 코를 벌름거리며 침을 흘리고 있는 제국주의 세력들에 맞서서 한민족 7천만이 함께 하나같이 일어나서 투쟁하고 쟁취해야 할 것이다.

남북해의 3자연대로 일본군 강제 중군 위안부를 만들어낸 괴롭치한 행각을 세계만방에 고발하면서 7천만 민족의 공동의 적, 미국과 일본을 몰아내고 진정한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한반도는 이미 미국에게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전반의 모든 것을 빼앗겼다, 지배와 예속의 질서는 일본에 이어 미국에게 그 지배의 권한을 넘겨주었다 뿐이지 한반도는 예속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대매국이 생명줄인 정권이 있는한 말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속의 역사를 개척하면서 투쟁으로 세계와 자기운명을 개척하며 한반도의 희망을 설계하고 있는 4천만 민중이 있고 그 속에서 언제나 헌신하며 삶을 불태우고 있는 2천 여성민중이 있다. 90년대 연방조국은 2천만 여성민중의 어깨 위에도 50만 청년여대생의 어깨에도 있다. 광범위한 자주교류 투쟁으로 정권의 창구단일화 논리를 불법으로 깨뜨리고 민족대단결 의식의 기치 높이 조국의 자주와 통일에 주역이 될 것이다.

2천만 여성민중의 든든한 벼로 조국통일의 주역이 되고자 하는 50만 청년여학도는 요구한다.

■김대중 정권은 기간 일본과 행한 굴욕적인 협정 전부를 파기하고, 어민을 비롯한 4천만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며 일본군 강제 중군 위안부 문제의 완전해결을 위해서 일본정부에 강력히 사죄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보다 근원적으로는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김대중 정권은 남, 북, 해외7천만의 단결된 힘으로 일본군 강제 중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50만 청년여학도의 의지를 막아내서지 말고, 낡은 이데올로기 공세로 자신의 정권유지에 활용하면서 청년여학도의 민족대단결 의식에 초를 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한민족의 여성을 그렇게 유린, 살인을 일삼더니 이제는 한반도 핵참화를 꾀하면서 마지막 최후의 도적질을 획책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만두고 이땅을 순순히 떠나라

■미국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미친개 마냥 날뛰지 말고 2천만 한반도 여성민중이 그리고 50만 청년여학도의 자주성 실현의 타오르는 의지를 무서워하고 이땅을 떠나야 할 것이다.



- 일본은 일본군 강제 중군 위안부 문제의 죄상을 제대로 고개 숙여 사죄하며 배상하고 한반도에서 군국주의를 부활에 보고자 하고 있는 것은 모략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 50만 청년 여학도는 폭발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수요시위와 금요시위의 일상화로 반미 반일 반정권 투쟁에 하나같이 일떠서서 민족의 자주권을 찾고 광범위한 자주교류를 성사에내어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고 연방조국통일의 주역이 될 것을 결의한다.

민족사적 전환기를 개척하는 5기 전여대협 총회 대표자



한총련 대의원대회의 평화적 개최 보장을 요구하는

5기 전여대협 대표자

7기 한총련 대의원불탈퇴 선언

우리는 지난날 학생운동을 탄압한 정권은 언제나 비참한 결말을 맞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만들고 탄압했던 김영삼 전(前)대통령 역시 역대 어느 정권보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당한 정권의 탄압에 맞서 한총련을 지키는 것은 자기 양심을 지키는 일이며 자기 양심에 떳떳할 때만이 학우들이 부여해준 학생회장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음을 믿고 99년 한해를 한총련 대의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이하 한총련)은 항일민족해방투쟁과 해방이후 줄기차게 전개되어온 자주민주통일투쟁의 빛나는 역사를 계승한 한국 대학생들의 자주적 대중조직입니다. 전대협 한총련 13년의 역사는 민중들과 함께 투쟁으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 왔던 역사이며 앞으로도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는 투쟁입니다.

당면하여 전개되고 있는 정권과 공안당국의 한총련 대의원 탈퇴공작은 자신의 집권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반역사적 반민중적 행동입니다. 우리 대표자들은 정권의 한총련 탈퇴공작을 단호히 거부하고 5기 전여대협 대표자로서 7기 한총련 대의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반드시 사수할 것입니다. 또한, 7기 한총련을 중심으로 이적규정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더 나아가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투쟁을 씩없이 전개할 것을 백만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 탈퇴공작 중단하고 이적규정 철폐하라.
- 대표자들에 대한 검거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 이적규정 철폐하고 반민주 반통일악법
- 전여대협 대표자들은 7기 한총련 대의원대회가 탄압이 아닌 평화적으로 개최될 것을 50만여학우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